

8
187

석사학위논문

기독교교육에 있어서 지식의 근원이 되는 Calvin의 “神知識” 개념연구

지도교수 김 용 섭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5년 2월

고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

박 혜 진



고신대학교




DM00000837

85

박혜진의 논문을 인준함

주심 김 용섭 

위원 강 용원 

위원 林 昌鎔 

고신대학교 대학원

199 년 월 일

차 례

서	론	3
1.	문제제기	3
2.	선행연구 개관	4
3.	연구의 방법과 의의	5
I.	창조에서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7
A.	지식의 개념	7
B.	선천적인 하나님 지식	11
C.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지식	21
D.	현상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지식	23
II.	神知識에 미친 罪의 영향	31
A.	神意識에 미친 罪의 영향	31
B.	양심 및 인간의 知的 기능에 미친 죄의 영향	35
C.	현상계에 미친 죄의 영향	38
III.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42
A.	객관적 지식	45
1.	성경 기록 以前	46
2.	특별계시	48
B.	주관적 지식	56
1.	성령의 內的 증거	57
2.	성령의 증거와 그리스도인의 경험	60
3.	知的 조명의 수단인 성경	63
4.	구원과 거듭남(중생)	65
IV.	기독교교육에 있어서의 “神知識”의 필요성	68
A.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神知識”	68

B.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	69
C. 중생(거듭남)과 구원의 경험 -----	71
D. 관계적 지식의 소유를 위해 -----	71

결 론 -----	75
참 고 문 헌 -----	78

서론

1. 문제제기

Parker J. Palmer는 기독교교육의 가장 중심적 관점이, 어떻게 아느냐 또는 아는 자와 그 대상과의 관계는 어떠하나 등의 문제를 다루는 인식론에 있다고 주장한다.¹⁾

기독교교육의 모든 이론과 활동은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고, 어떠한 인식론을 갖느냐가 기독교교육의 핵심이라고 말한다.²⁾ 譯者인 박원호 교수도 서문에서 인식론은 하나의 지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삶의 방식과도 연결된다고 했으며 어떠한 인식론을 갖느냐가 우리 존재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며 이것이 기초가 되어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하는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³⁾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인식론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하지 않고는 기독교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

그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핵심인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Packer는 그의 저서 *Knowing God*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피조되었는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 우리의 생의 목적

1) Parker J. Palmer, *To Know As We Known*, 박원호 역, 기독교교육인식론(기독교교육의 영성), 서울: 도서출판 광나루, 1991, p. 7.

2) Ibid.

3) Ibid.

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인생에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호 6:6)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⁴⁾

이처럼 기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일치된 의견이다.⁵⁾ 그러나 불행하게도 종종 기독교교육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촉진시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일치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각 교과와 거기에 속한 기독교교육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 많은 다양한 교과에 따른 다양한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적인 부분이 기독교교육을 함에 있어서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선행연구 개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종교개혁자이며 개혁주의 신학자였던 칼빈의 사상을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사상의 집대성인 ‘신인식론’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자 한다.

칼빈에 관한 연구논문이나 그의 신학사상과 관련된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고 연구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4) J. I. Packer, *Knowing Go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3, P. 29.

5) Jim Wilhoit, *Christian Education and the Search for Meaning*, 신서균 역, 현대 기독교교육,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1, p. 29.

그러나 1920년대 이후 국내의 학위 논문 중에서도 ‘칼빈의 神인식론’과 관련된 논문과 ‘칼빈의 교육관’과 관련된 논문을 조사해 보면 그다지 많지 않다. 학위논문을 조사해 보면 다음과 같다(연대순으로).

- 1) 칼빈의 신인식론, 서용구,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1966.
- 2) 요한 칼빈의 신인식론 연구, 박원근, 한신대학대학원, 1972.
- 3) 칼빈의 교육활동과 그 의의에 관한 연구, 강용원, 장신대학대학원, 1978.
- 4)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교육신학 연구, 황성철, 총신대학대학원, 1980.
- 5) Calvin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계시관 연구, 최명근, 총신대학대학원, 1983.
- 6) 칼빈의 신인식론에서 본 한국인의 종교 심성, 문성일, 한신대학대학원, 1984.
- 7) 칼뱅의 인간이해와 기독교교육, 이종찬, 장신대학대학원, 1987.
- 8) Calvin의 교육사상에 관한 연구, 박종영, 조선대 교육대학원, 1989.
- 9) 칼빈의 성령론에서 본 기독교교육의 가능성, 지용덕, 연세대 교육대학원, 1990.
- 10) 칼빈주의에 입각한 교육의 기독교적 정당화 고찰, 이규현, 총신대학대학원, 1990.

3. 연구의 방법과 의의

칼빈(Calvin)의 신학사상의 집대성인 “기독교강요(*Institutes of Christian Religion*)”⁶⁾를 살펴 보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The Knowledge of God)”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주로 칼빈의 “기독교강요”를 연구하는 문헌연구에 의존한다.

기독교교육의 이론적 근거는 교회의 창시자인 “하나님의 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된 종교요, 하나님의 자기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이다. 따라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리 열심을 다하는 최선의 헌신일지라도 그 학습된 신앙이란 한낱 자기 도취적인 맹신과 광신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만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구체적 행위 속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곧 복음에 기초한다(고후 5:17).

그러므로 본 연구는 하나님의 계시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기독교강요”를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기독교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서 기독교적인 교육 현장에서 기독교교육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신학개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강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를 주로 참고하겠으며 본 논문 이하의 참고 표시는 Inst. 라고 표시하고 권, 장, 절의 순서대로 숫자로 표시하였다.

I. 창조에서 알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A. 지식의 개념

칼빈(Calvin)의 신학에서 “지식”이라는 말은 그 구조와 내용에 있어서 계시의 중심성을 강조한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전체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근원을 두 가지로 제시한다. 하나는 창조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이다.

지식의 의미에 대하여 바빙크는 판단, 믿음 그리고 지식으로 구분한다. 판단에서는 자아가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정보를 사실로 받아 들인다. 여기에는 객관적 증거도 주관적 확실성도 없다. 누구든지 어떤 정보를 자아에 적합하다고 하는 입장에서 사실로 받아 들일 때 믿는다. 주관적 확실성은 있지만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표현해 놓고 있다.

다음으로 믿음과 직접적인 지식이라는 용어들은 믿음이 진리의 직접적인 이해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빙크에 의해서 동의어로 사용된다. 그는 믿음없는 지식이 없으며 지식이 없는 믿음도 없다는 명제를 옹호한다. 지식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과정 혹은 작용의 결과이다⁷⁾라고 말했다.

칼빈은 이러한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지식을 인식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다.

7) Cornelius Jaarsma,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정정숙 역,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교육철학, 서울: 총신대학출판부, 1983, p.111.

8) Ibid.

“신앙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라 확신이다”⁹⁾라고 칼빈은 말한다.

칼빈은 자신의 著作에서 “지식”에 대한 정의를 정식으로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과학적 인식론의 결여와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아무도 칼빈의 정의를 확립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 지식(神知識)이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 칼빈이 좋아한 용어는 *notitia* 이나 그는 또한 이 용어와 함께 *cognitio* 라는 말을 교대적으로 사용하였다. 그에 덧붙여 타락한 인간은 자연계시에서, 비록 불완전한 형식이지만, 하나님에 관한 *notitia* 와 *cognitio* 를 소유한다고 했다. 지식이란 말은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던 간에 칼빈에 있어서는 단순한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종교적 배경에서 사용되는 말이다.¹⁰⁾ 이와 밀접하게 관계된 용어들 중에 칼빈이 사용한 용어들은 *agnitio*(인지 혹은 자인), *intelligentia*(주로 지각), 그리고 *scientia*(주로 숙달된 지식) 등이다. 하나님 지식과 순종은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올바른 지식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고 원만한 신앙 뿐만 아니라, 순종에서 나오기 때문이다.”¹¹⁾ 이러한 사상은 역시 그의 罪論에도 내포되어 있다. 칼빈은 순종치 않은 타락한 인간의 *notita* 와 *cognitio* 와 성령으로 거듭나 성경의 특별 계시를 받아들인 자의 올바른 지식을 구별하였다. 칼빈은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지식이 부패하고 왜곡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지만, 이 타락한 인간의 지식과 신자의 올바른 지식을 분명하게 구별짓지는 않았다.¹²⁾

순종과 지식의 밀접한 관계는 신앙에서 가장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순

9) *Inst.*, III. 2. 14.

10) *Ibid.*

11) *Inst.*, I. 6. 2.

12) 신복윤,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1)”, *신학정론* (제15집), 합동신학교, 1990, P. 76.

종은 절대적으로 완전한 신앙의 근원”이며¹³⁾ 또한 “지식 (notitiam)이 없이는 신앙이 없으며”¹⁴⁾ “이 신앙은 무지가 아니라, 지식(cognitione)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¹⁵⁾ 칼빈은 1539년 판으로 부터 1559년 판에 이르기까지 기독교강요의 모든 판에서 신앙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즉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진실성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또는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며, 이 지식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고, 우리 마음에 印친 바 되는 것이다”¹⁶⁾라고 하였다.

신앙에는 notitia 와 cognitio 가 다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단어는 자연신학에서 사용한 것 이상으로 신앙과의 관계에서 주의 깊게 구별되지는 않았다. 물론 notitia 라는 말은 때때로 서론적 지식, 혹은 준비적 지식으로 생각된 것 만은 사실이다.¹⁷⁾ 그렇다 하더라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에 관한 지식으로 믿음을 준비시킨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에 관한 지식은 믿음에 따라 오는 것이다.¹⁸⁾

칼빈은 지식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칼빈이 쓴 기독교강요 전반에 흐르는 신앙에 있어서의 신뢰의 요소와 지식의 요소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앞의 내용에서도 설명했듯이 표현에 있어서 fides - notitia - cognitio 의 순서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notitia - fides - cognitio 의 순서로 되어 있다. 순서에 있어 애매모호한 표현같아 보이는 부분이지만, 칼빈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 아는 일들은 우리 앞에 있지 않고,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믿음의 지식은 이해가 아니고 확신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

13) Inst., I. 6. 2.

14) 디도서 1:1.

15) Inst., III. 2. 2.

16) Inst., III. 2. 7.

17) 신복윤, op. cit., p.77.

18) 요한복음 10:38.

론이다.”¹⁹⁾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지식의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은 계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는 기독교강요 제1권 첫머리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즉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원리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음 장에서는 지식을 논하지 않고 계시를 논한다. 실로 기독교강요 전체의 주제가 여러 면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지만, 칼빈은 이 지식을 따로 다루지 않고 계시와 관련해서만 다루고 있다. 즉 하나님 지식의 문제를 계시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하나님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전제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를 이해하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는 운동이며, 따라서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

칼빈의 사상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들 중의 하나는,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신앙 - 지식과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관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이중적 하나님(*duplex cognitio Domini*)의 개념이다.

바빙크나 칼빈의 신지식에 관한 이론에는 어떠한 전제가 있었다. 어떤 지식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다.

호패커와 비일의 정의에 따르면, ‘전제’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사고방식에 있어서 “미리 가정하는” 생각들이다. 전제들은 지식의 출발점을 줄 뿐만 아니라, 지식을 얻는 방법과 지식을 이끌어 가는 목표도 결정한다. 그러므로 모든 실제관은 우리가 인식하는 내용과 방법에, 인지되지 않을 지라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어떤 생각들이나 진리 주장(*truth-claim*)으로부터 출발한다.²⁰⁾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초월적이며 인격적인 하

19) *Inst.*, III. 2. 4.

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

성경의 전통에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식, 즉 일반계시와 특별계시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신다. 일반계시는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장소와 문화를 전달하신 것이 아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연과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과 경험과 역사의 사실 속에서 하신 계시이므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해 놓고 있다.²⁰⁾

만일 인류가 범죄한 상태가 아니라면, 사람들은 일반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로마서 1:18 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람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 결과로 우리의 지식은 도덕적으로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므로, 죄는 우리의 의지를 못쓰게 할 뿐만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부인하게 만든다. 죄는 사람의 지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계시는 보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계시는 하나님의 특별계시, 즉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 행위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준다. 특별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세계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계시해 주신다.²²⁾

B. 선천적인 하나님 지식

칼빈은 하나님께서 피조세계 속에서 인간을 향하여 계시하신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주만물 및 인류역사 속에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주 전체의 구조 속에서 자기를 계시하시며 매일 자신을 나타내시고, 사람이 눈을 뜨는 한 하나님을

20) W. 앤드류 호팩커, G.K. 비일, “성경의 인식론: 계시”, 기독교 세계관(1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pp.235-236.

21) Ibid., p.242.

22) Ibid., p.224.

동시에 의식하지 않고는 안되게 하신다”²³⁾고 하였다.

사도 바울은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²⁴⁾고 하였다.

神知識의 문제는 사람들이 마땅히 일생을 바쳐 탐구해야 할 주제라고 칼빈은 말한다.²⁵⁾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매우 열성적이지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매우 인색하다.

칼빈이 주도한 제네바 교회 신앙문답 제1문에서 인생의 주요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일’이라고 했고, 제3문에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도 神知識이라고 했다.²⁶⁾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1권 3장 전체를 할애하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인간의 마음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뿌리박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本有的(선천적, 고유적) 지식을 소유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것은 학교에서 비로소 배워야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태어나면서부터 터득하는 것이며, 많은 사람이 전력을 다하여 이것을 잊어 버리려고 해도 본성 그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 교리이다.²⁷⁾

칼빈은 여기서 “사실상 인간의 마음 속에는 타고난 본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이 있다”²⁸⁾는 것을 명백한 사실로 설명하고, 이 사실에서

23) Inst., I. 5. 1.

24) 로마서 1:19-20.

25) 칼빈 주석 예레미야 9:23-24 주석. (이후의 각주에 ‘주석’은 ‘칼빈 주석’에서 인용한다)

26) 이장식, 기독교사상사(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p. 77.

27) Inst., I. 3. 3.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추론하였다. 온 인류는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선천적으로 본능적으로 지니고 있는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동물과 구별된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상실한다는 것은 곧 창조의 법칙에서 떠나게 됨을 의미한다.

선천적 하나님 지식은 *sensus divinitatis*(하나님 의식)²⁹⁾, 혹은 *sensus deitatis*(신격에 대한 의식)³⁰⁾이다. 칼빈 사상에서 *sensus divinitatis* 라는 말은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면밀하게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보통 *intelligentia numinis*(신성에 대한 이해)³¹⁾, *qustus divinitatis*(신성을 맛봄)³²⁾ 혹은 *semen religionis*(종교의 씨앗)³³⁾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칼빈은 분명히 이 말을 영혼의 기능으로도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지적 요소 때문에 단순한 주관적 감정으로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notitia(knowledge)*이다.³⁴⁾ 그러므로 분명히 그것은 종교적 지식인 것이다. 이것은 본래 지적으로 믿되, 본성(*nature*)을 떠나서는 믿을 수 없는, 그리고 예배에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감정, 혹은 이념인 것이다.³⁵⁾

Sensus divinitatis, 혹은 *deitatis*는 단순한 하나의 개념이나 육감이 아니며, 우리 속에서 나온 것도 아니다. 칼빈은 이 “교리”를 모태에서부터 터득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지만³⁶⁾, 아주 명백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의

28) Ibid.

29) Inst., I. 3. 1.

30) Inst., I. 3. 3.

31) Inst., I. 3. 1.

32) Inst., II. 2. 8.

33) Inst., I. 3. 1.

34) Inst., I. 10. 1.

35) T.H.Parker,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 a study in Theology of John Calvi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57, p. 8.

36) Inst., I. 3. 3.

신적 위엄을 어느정도나마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 주셨다”³⁷⁾고 하였다.

칼빈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성경 즉 계시를 통하여 그 존재를 이해하며 인간 안에 있는 神知識을 인정하였으므로 神存在 여부를 논의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칼빈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서 자기의 神論을 다루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 의식이 특별히 강하여 그의 모든 사고와 일상 생활의 대소문제에 있어서까지 하나님 생각에서 조금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의 신인식은 헌터(A.M.Hunter)가 지적한 대로 주로 하나님의 父性的 의식이었다.³⁸⁾

인간의 신인식의 가능성은 인간의 마음 속에 본래부터 타고난 神意識이 있다는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 신인식은 양심에 주로 나타난다. 또한 인간의 神認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을 전제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종교의 씨앗을 모든 사람에게 심어 주셨다.³⁹⁾ 인간은 종교적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⁴⁰⁾ 항상 어디서나 종교를 만들려고 하며, 그들 자신의 하나님 개념과 조화시키려고 애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존재하는 곳에는 어디에나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자기의 無知를 구실로 삼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기 존재를 다소 깨달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주셨다.⁴¹⁾ 그러므로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신성에 대한 의식이 새겨져 있어서 지워 버릴 수가 없다.⁴²⁾

37) Inst., I. 3. 1.

38) 최명근, “Calvin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계시관 연구”, 총신대학 신학석사 학위 논문, 1982, p.23.

39) Inst., I. 4. 1.

40) Inst., I. 3. 2.

41) Inst., I. 3. 1.

42) Inst., I. 3. 3., I. 4. 4.

칼빈은 인간의 마음속에 神認識을 말살시키시는 것은 인간의 천성을 전적으로 변화시키시는 것 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⁴³⁾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본질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본능적인 신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배우는 교리가 아니라 사람마다 나면 서부터 스스로 배우는 교리이다.⁴⁴⁾ 악한 사람들이 아무리 그들의 의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념을 떨쳐 버리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본성적으로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다.⁴⁵⁾

워필드 (B.B.Warfield)가 지적한대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곳에는 어디나 종교가 있다고 했는데 그는 종교의 일반적 기원을 神知識에 둔다.⁴⁶⁾

결론적으로 神知識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神知識,” “종교의 씨,” “神認識” 등의 말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고 다만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지각작용과 이성의 이해력과 하나님의 신의에 관한 감각이요 이것이 곧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였다.⁴⁷⁾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이 실제적으로 그리고 생동적으로 지각하는 관계를 설명하는 실존적 개념이다.⁴⁸⁾ 神認識은 외부 세계로부터 이끌어 낸 추리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개념이나 예감도 아니고, 또 우리의 내부에서부터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관한 지식을 인간에게 부여하신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神認識에 대하여 그 유래와 내용을 분석하려 하지 않고 그 경험적 효과를 말하였다.⁴⁹⁾ 이 神認識의 경험

43) Inst., I. 3. 1.

44) Inst., I. 3. 3.

45) Ibid.

46) B.B.Warfield,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56, p.37.

47) Edward A. Dowey,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2, p.51.

48) Inst., I. 4. 4.

49) Inst., I. 4. 1.

적 효과는 종교의 보편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이 선천적인 神知識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흐려지고 어두워져서 구원의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앞서 살핀대로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서두에서 말하기를 참되고 근본적인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 사이에 관한 지식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두 지식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선행하고 어느 것이 그 결과인지 분간하기가 곤란하다고 말한다.⁵⁰⁾ 그렇다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이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은 바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칼빈의 사상에서 논의된 신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견해는 칼빈 사상에 있어서 일반계시를 통한 신인식과 특별계시를 통한 신인식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열쇠이다.⁵¹⁾ 하나님을 알아 나가는 인식의 주체인 인간은 성경에서 어떻게 시작되는 존재인가? 창세기 1:26-28 사이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서 인간의 등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수세기 동안 논란되어 왔던 주제이지만 그 형상이라는 말에는 동물과 구별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어떤 특징 또는 독특성이 담겨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도덕성(moral nature), 영성(spirituality), 또는 인성(personhood)이라고 생각했다.⁵²⁾

브라이언 왈쉬와 리차드 미들튼이 쓴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가

50) Inst., I. 1. 1.

51) 최명근, op. cit., p. 31.

52) Brian J. Walsh and J. Richard Middleton, *The Transforming Vision*, 김향안 역,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글로리아, 1992, p. 65.

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는 땅에 대한 지배 및 통치권이요, 둘째는 하나님 혹은 우상 숭배에 대한 종교적 선택이다. 형상에 대한 광의 및 협의적 이해와 다소 일치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상 서로 연결되어 있다.⁵³⁾

계시적 유신론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다고 확언한다. 확실히 이러한 성경적인 신적 마음과 인간적 마음을 융합하여 인간의 유한성과 타락을 무시하는 합리적 선형 이론들과는 다르다. 인간의 본질 가운데에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한 가지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 때까지 설명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인 것이다.

칼빈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쓸 때 하나님의 창조로 된 만물은 그의 영광의 형상 혹은 거울이라는 넓은 의미를 갖기도 하고 또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즉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특수관계를 말하는 좁은 의미를 갖기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쓰이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은 물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만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자기가 지으신 만물을 보시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바라 보셨고 그의 창조물 안에 자기의 형상을 친히 넣어 주셨던 것이다.⁵⁴⁾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인간 전체라기 보다는 사람의 영혼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 위치한 자리라고 칼빈은 생각했다.⁵⁵⁾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대해 바빙크(H. Bavinck)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 보기로 한다. 그는 에베소서 4:24, 골로새서 3:10을 근거하여 협의의 하나님의 형상과 광의의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하고

53) Ibid., p. 66.

54) 이장식, op.cit., p. 164.

55) Inst., I. 15. 2.

있다. 협의의 의미로는 원의(Original Righteousness), 즉 참지식, 거룩, 의(義)로 구분하였고 광의의 의미는 세 가지로 구분해 놓고 있다.

첫째로는 인간의 영적 본성(man's spiritual nature), 즉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며 이것으로 인간의 본질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은 독립된 것이며 불멸적인 것이다.⁵⁶⁾

둘째로 인간의 靈이 부여받은 능력이다. 그러므로 자의식적이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이 된다.⁵⁷⁾

셋째로 인간의 몸은 영의 도구로써 영혼의 활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다.⁵⁸⁾

반면에 카이퍼(A. Kuyper)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한 原義를 구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창세기 1:26의 말씀 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게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단순히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은 결백한 상태나 점차로 발달해 감으로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참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있다. 이것은 정도 차원의 말이 아니라 상태인데 이것을 原義라고 한다. 즉 인간 존재의 유기체와 그 유기체를 바로 움직이게 하는 原義로 구성되었다고 한다.

벨코프(L. Berkhof)는 형상(image)과 모양(likeness)의 두 낱말의 개념을 동일하게 생각하여 모양은 가장 닮은 가장 유사한 형상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으로 부가한 것이라고 한다. 이 개념은 두 단어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해 준다고 말했다.⁵⁹⁾ 개혁주의적 해석은 하나님의 자연적 형상과 도덕적 형상을 구별한다. 자연적 형상은 둘 중 보다 광범위

56) Herman Bavinck, *Our Reasonable Faith a Survey of Christian Doctrine* trns. by Henry Zyl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5, p.211-212.

57) Ibid.

58) Ibid.

59) Louis Berkhof, *Systematic Theology*, The Banner of Truth, Michigan, Grand Rapids, 1949, pp.206-207.

한 것으로 인간의 영적, 합리적 불멸의 본질 속에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형상은 죄로 말미암아 아주 상실하게 되었지만(일명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보호되어져 남아있게 되었다. 도덕적 형상은 보다 제한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며 참지식, 의, 기록 속에 존재하는 형상인데 죄로 말미암아 상실했으나 그리스도에 의해 회복되어가는 것이다.⁶⁰⁾

우리가 회복되며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얻은 갱신(更新)에서부터 비롯된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는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워지는 것이다. 이는 그가 우리를 회복시키시되 참되고 완전하게 흠없게 만드시는 까닭이다.⁶¹⁾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형상이시며 이에 따라 우리가 회복되는 까닭으로 참된 경건, 의(義), 순결, 지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⁶²⁾

아담이 최초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을 때에는 완전한 상태에 있었고 자유의지를 받았다. 그러므로 그가 선악을 선택하는 일은 자기 의지(意志)에 달려 있었다. 그의 정신과 의지는 최고의 공정성(公正性)을 가지고 있었다.⁶³⁾ 그리고 그는 원하기만 했다면 이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영생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⁶⁴⁾ 또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능히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타락을 선택했던 것이다. 아담은 실로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시험을 이길 능력(인내의 힘)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능력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러므로 아담이 처하여 있던 위치는 조금도 구실을 내세울 것이 없었던 것이다.⁶⁵⁾

60) Ibid., p.206.

61) Inst., I. 15. 4.

62) Ibid.

63) Inst., I. 15. 8.

64) Ibid.

65) Ibid.

위와 같은 사실들을 미루어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에 관계된 것을 모두 다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⁶⁶⁾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성의 순수하며 탁월한 실재로서, 타락(하나님을 배반) 이전에는 아담 안에서 빛나고 있었으나 그 이후 부터는 부패해졌으며 거의 멸절되었기 때문에 그 파멸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다만 남은 것이 있다면 혼란과 훼손과 오염이 있을 뿐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선택자들에게서 볼 수 있으며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되는 한에 있어서만 그러하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하늘 나라에서 완전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⁶⁷⁾

이상에서 살펴 본 대로 “하나님의 형상” 이란 인간 영혼에 관련있는 것이고 그 완전한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결국 칼빈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神知識과 상호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⁶⁸⁾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 행위와 그것에 대한 인간의 응답 행위의 두 요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안의 하나님의 형상의 성취 여부를 확인하는 길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를 찬양하는 의롭고 순종하는 생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의 최후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 실로 칼빈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거울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⁶⁹⁾이라고 말해야 하겠다.

66) Inst., I. 15. 4.

67) Ibid.

68) 이장식, op. cit., p.168.

69) Ibid., p.169.

C.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 지식

이제 자연 계시(일반계시)의 양식 중 하나인 양심(良心)에 대해 논의해보자.

양심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관적으로 계시한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선천적 神知識 다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칼빈은 양심을 기독교 강요에서 *sensus divinitatis* 나 외부 세계에 나타난 계시와 함께 나란히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양심이 하나님 지식의 한 형식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부패한 본성에는 아직도 빛의 두 주요 부분이 남아 있는데, 첫째는 모든 사람 안에 심어져 있는 종교의 씨앗이요, 둘째는 그들의 양심에 새겨져 있는 선과 악의 구별이다.⁷⁰⁾

칼빈에 있어서 양심은 인간에게 주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주관적 계시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창조 질서 자체에서 주어진 것이요, 성경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칼빈은 “행위가 인간에게 관여하는 것처럼 양심을 하나님에 관한 것이다”⁷¹⁾라고 하였다. 양심은 인간성의 부분 즉 하나님의 형상의 한 요소이다.⁷²⁾ 그러므로 양심은 인간의 마음 속에 본래적으로 심어져 있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의식”⁷³⁾ 혹은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지식”⁷⁴⁾ 이라고 하기도 한다. 칼빈은 인간 가운데는 두 가지 통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 하나는 “영적 통치”로서 이를 통하여 우

70) 요한복음 1:5 주석.

71) Inst., III. 19. 16.

72) 욥기 33:14-17 주석.

73) Inst., IV. 10. 3.

74) 욥기, op. cit.

리는 인간 사이에서 준수되어야 할 지침과 예정에 관한 의무를 다하도록 교육을 받게 되는 것⁷⁵⁾이라고 한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는 첫째로 양심과 둘째로 10계명에 나타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예언자들의 말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윤리적 교훈이 있다. 이 양심에는 초월적이고 계시적인 특성이 있다”⁷⁶⁾고 하였다. 그리고 양심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수단인데 이 양심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핑계할 수 없도록 어둠 속에 파묻힌 인간의 모든 은밀한 것을 관찰하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⁷⁷⁾ 그래서 양심을 천 명의 사람의 증인과 맞먹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한다.⁷⁸⁾ 칼빈은 그의 로마서 2:15의 주해에서 “양심에 대한 바울의 학자다운 정의에 주목하라. 바울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우리가 취한 행위의 바른 경로를 옹호해 주는 어떤 논증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우리의 악한 행실들로 인하여 우리를 비난하고 유죄선고를 하는 다른 논증들이 있다”⁷⁹⁾고 양심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양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감각한 채 영구히 잠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힘쓰고 있는 내적인 증인이고 경고자로서 선과 악을 구별하므로써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에 고발해 주는 역할을 한다.⁸⁰⁾ 이것이 곧 바울이 “그 양심이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다”는 의미인 것이다.⁸¹⁾

칼빈은 양심을 매일 그리고 최후의 심판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동일시 한다.⁸²⁾ 양심은 분별하는 선천적인 능력이며 창조적의 뜻(의지)의

75) Inst., III. 19. 15.

76) Ibid.

77) Ibid.

78) 로마서 2:15 주석.

79) Ibid.

80) Inst., II. 8. 1.

81) 로마서 2:14-16 참고.

82) 고린도전서 10:25 주석.

표현이어서 神的인 것이다.

야스마(Cornelius Jaarsma)는 양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적 自覺 능력을 지닌 존재로 창조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도덕의식(moral awareness)을 지닌 도덕적 존재(moral being)이다. 인간은 도덕적 자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심을 소유한다. 양심은 생활에 대한 확실한 규범에 의해 분명하게 되어질 수 있다.⁸³⁾ 이렇듯이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양심은 피조물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지)에 관한 지식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인데도 불구하고 인간 양심의 기능이 얼마나 무디어졌는가? 그러므로 이 양심의 기능이 얼마나 그 능력을 발휘하느냐에 대한 문제만이 남아 있다. 물론 죄인은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고유한 능력을 피하려고”⁸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神知識을 깨우치려는 의지를 갖고 계신다.

D. 현상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지식

현상계에서 얻을 수 있는 神知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전달된 하나님의 자기현현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얻는 지식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에 심어주신 자신에 관한 지을 수 없는 계시 외에, 자신에 관한 명백하고도 풍부한 외부적 계시를 또한 추가 하셨다고 주장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역과 행위에서 그를 보지 못

83) Cornelius Jaarsma,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61, p. 67.

84) Inst., II. 2. 22.

하고는 자연을 폭넓게 볼 수도 없고, 사건의 과정들을 숙고할 수도 없다. 85) 칼빈은 하나님의 이 자연계시의 명료성, 보편성 그리고 확실성을 아주 강조하였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1권 5장의 명칭을 “우주 창조와 그 계속적인 통치에서 현저히 드러난 하나님 지식”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 지식을 창조된 세계와 역사의 현상에서 귀납한 것이다. 이렇게 얻은 지식은 모두 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얻을 수 있는데, 대부분 시편과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는 이 5장의 모든 성경인용구는 자연에서 합리적으로 연역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증명을 설명하고 확인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칼빈은 어떤 실례를 들 때마다, 창조에 나타난 계시를 먼저 이용하고, 그 다음으로 “그러므로 선지자가 말하기를” 혹은 “이와 똑같은 이유로” 다윗이, 또는 바울이 말하였다는 말들을 첨부하여 성경을 소개하였다.⁸⁶⁾ 그러나 그는 이 때까지 기독교 강요에서는 아직 성경을 “안경”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이 도달하게 되는 창조주에 관한 지식도 말하지 않았다. 현상계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 지식은 첫째로 우주의 형성, 좀 더 분명히 말하면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을 숙고하는 데서 오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를 깊이 생각하는 데서 온다. 이 하나님의 세계통치는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주로 나타난다.⁸⁷⁾ 아무리 합리적인 유신론자라해도 창조된 우주가 그 창조주를 보여 준다고 주장한 칼빈만큼 명백하게 주장하거나 강조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의 광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 있는 형상을 보게 된다”⁸⁸⁾고 그는 다시 말한다. 사실상 우리 주변의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다(시 19:1-4, 롬 1:20).

85) Inst., I. 5장 전체.

86) Inst., I. 5. 1-13.

87) Inst., I. 5. 7.

88) 시편 19:1 주석 참고.

신학자들은 성경을 가리켜 “특별계시”로 부르는 반면, 자연을 “일반계시”라고 부른다. 특별계시나 일반계시 모두가 그 계시의 근원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⁸⁹⁾ 자연에 대한 공부의 확실한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해 주며 성경이 다루고 있지 않은 많은 질문들에 대해 대답을 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과학의 연구 능력이 결코 과대 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 프랭크 개블라인(Frank Gaebelien)이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적인 사람이 과학의 진리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는 단지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진리를 발견했을 뿐인 것이다. 개블라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보다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해 주는 꾸준한 과학적 연구 속의 “육감들”은 단순히 행운으로 얻는 것들이 아니고 그것들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일부분이다.⁹⁰⁾ 인간은 진리의 발견자일 뿐 창조자가 아니며 모든 과학적 질문체계는 先在하는 원리들 위에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들 가운데 하나가 자연은 질서 정연하며, 지성적이며, 인간 연구활동의 대상이라는 확신으로써 이것은 과학을 떠나서는 인간의 존재가 전적으로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약간 이상하게 들려지는 기본전제이기도 하다”⁹¹⁾라고 아더 홈즈(Arthur F.Holmes)는 덧붙여 설명해 주고 있다. 칼빈에게 있어서 우주는 하나님 속성들을 나타내 주는 “한권의 책”⁹²⁾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극장”이다.⁹³⁾ 하나님은 세계 모든 부분에서 자신을 보여 주셨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눈을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은 본질상 편재하시기 때문에⁹⁴⁾ 하나님의 현현을 피할 수 있는 사람

89) George R.Knight, 박영철 역, op. cit., p.194.

90) Ibid., pp.194-195.

91) Ibid., p.195.

92) 욕기 9:7-15.

93) Inst., I. 5. 5.

94) Ibid.

은 하나도 없다. 칼빈은 인간, 즉 타락한 인간도 실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고도 아주 강력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위에 영광의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은 너무나도 뚜렷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식하고 둔한 사람이라해도 무지를 구실로 삼을 수 없다.”⁹⁵⁾ 그는 이러한 자신의 확신을 거듭 말한다. “그 천체가 너무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도 그 관찰을 피할 수가 없다.”⁹⁶⁾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교회에 속하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같이 공통적이다.”⁹⁷⁾ 한편 박윤선 박사가 설명하는 자연계시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살펴 보고자 한다. 그는 그의 성경신학 제2장에서 “원시시대의 계시”에 대해 논한다. 그가 창세기 1장 - 3장까지의 창조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연장되는 부분을 토대로 뽑아 낸 것은 상징과 예표로 된 1)생명나무, 2)선악과 나무, 3)뱀, 4)몸의 붕괴이다.⁹⁸⁾ 그는 원시시대의 계시는 주로 상징이나 예표로 되어 있고⁹⁹⁾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징 계시로 되어 있으며 생명의 원리는 생명나무로 나타났고, 시련의 원리는 선악과 나무로, 시험의 원리는 뱀으로, 영적 사망의 원리는 육신의 사망으로 각각 상징되어 나타났다¹⁰⁰⁾고 했다. 창조당시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다(창2:9).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동산”(겔28:13)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그곳은 하나님 중심의 장소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그곳은 사람이 살기 위한 장소라기 보다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¹⁰¹⁾ “생명나무”에 대한 해석이 몇가지 있

95) Inst., I. 5. 1.

96) Ibid.

97) Inst., I. 5. 6.

98)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1971, pp.63-70.

99) Ibid., p.63.

100) Ibid.

101) Ibid.

지만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신학자인 칼빈의 해석은 이렇다. 아담은 자기
 의 받은 생명이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기억함이 필요했으
 므로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생명의 근원(하나님)
 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명나무 열매 자체는 외부적 상징 뿐이므
 로 거기에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칼빈은 강조했다.¹⁰²⁾ 둘째 상
 징물인 “선악과 나무”는 어떠한가? 학설들이 여러가지 있지만 제일 신빙
 성있고 타당성있는 학설이라 할 수 있는 해석은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
 께서 사람을 종교적 또한 도덕적 성숙 상태로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¹⁰³⁾
 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해석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가지고 사람에
 게 명하여 그 순종여부를 보신 것 뿐이라고 한다.¹⁰⁴⁾ 다음으로 세째 상징
 물인 “뱀”에 관하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실물로 제시한다.¹⁰⁵⁾ 여러가
 지 해석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뱀”은 실물이면서 마귀를 상징한 것 뿐이
 다(계 12:9)라고 박윤선 박사는 말했다. 요한일서 3:8 에 말하기를 “마귀
 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고 하였다. 마지막 상징인 “몸의 붕괴”에는 靈
 的 죽음과 肉身의 죽음이 내포되어 있다. 현상계에서 볼 수 있는 자연계
 시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神知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죽음
 (사망)”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인 인간에게서 하나님
 의 영광이 떠나고 영적 존엄성이 떠난 상태의 모습이 바로 “죽음”의 상
 태이다. 하지만 그 이전 창조 당시에는 어떠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과의
 행위 계약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 심령에 담력과 평안과 영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었다(창 2:25). 창세기 3:19

102) Ibid., p.64.

103) Ibid., p.65.

104) Ibid.

105) Ibid.

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는 자연현상이며 자연의 결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은 틀린 해석이다. 왜냐하면 창세기 2:17 에서 분명히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한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은 분명히 사망을 죄값이라고 말해준다(롬 6:23 참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값으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현현을 절실히 알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다. 깨닫든지 못하든지 간에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의 고통인 것이다. 위와 같이 자연계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분을 알 수 있는 것들을 항상 인간에게 보여 주셨고 만들어 놓으셨다. 물론 성경은 지금은 선악과도 생명나무도 볼 수 없지만 죽음(사망)에 관하여는 변함없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입증해 주며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여전히 경험하도록 하였다. 자연현상계에서 인식의 주체인 인간은 유기적 통일체로서 통일성의 세 가지 국면(three facts of the unity of a person)을 소유한다고 야스마(C.Jaarsma)는 말한다.¹⁰⁶⁾ 그는 그 세 가지 국면을 Pneuma(spirit), Psyche(soul), Soma(body)로 들고 있는데,¹⁰⁷⁾ Pneuma(spirit)는 생명을 주는 생명의 원리로서 모든 경험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며 전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Psyche(soul)는 사고하고(thinking), 느끼고(feeling), 의도하고(willing), 지각하는(perceiving) 것과 같은 정신적 과정이며 기능인데 인간 행동의 정신적 활동과 신체적 활동은 명확하게 구분하게 어려운 것이라고 하였으며, Soma(body)는 신체적 구조와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이 세 가지는 구분되어져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호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인간을 유기적 통일체로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몸(body)과 영혼(soul)을 함께 포함하는 유기적 통일체로서의 전인(the whole man)을 의

106) Cornelius Jaarsma, op. cit., pp.41-42.

107) Ibid.

108) Ibid.

미하는 것이다.¹⁰⁹⁾ 위에서 언급한 인식의 주체인 인간은 유기적인 통일체로서 자신이 소유한 종합적인 personality 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부분도 많다. 물론 인간에게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많고 완전치는 않아도 인간 존재의 통일성은 위의 관점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칼빈은 뛰어난 필치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인간의 역사에서 끌어내고 있다. 하나님의 공의는 악인을 벌하고, 경건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데서 명백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지칠 줄 모르는 사랑으로, 비참한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를 찾게 하시는 父性적 관대하심과 악인들의 형벌을 연기해 주심에서 볼 수 있다.¹¹⁰⁾ 공정하지 못한 이 세상의 생활도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행동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흔들여 놓지 못한다. 하나님은 공의와 자비 외에도 섭리적 통치를 통해서도 자신의 권능과 지혜를 계시하신다. 칼빈은 인간의 역사에서 얻는 하나님 지식, 즉 하나님의 사역의 제2의 종류를 분석할 때에도 똑같이 표현한다. 하나님의 권능은, 극악무도한 불경자의 잔인성이 순간에 무너지고, 억눌리고 고통을 당하는 자가 다시 선한 소망을 찾게되며, 소수이며 약하고 무장하지 않은 자가 많고 강하고 무장한 자에게 승리하게 될 때 확연히 드러난다.¹¹¹⁾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이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게 한다. 왜냐하면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마땅히 영원하시며 자존하셔야 하기 때문이다. 더우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존하시는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¹¹²⁾ 참으로 하

109) Francis Nigel Lee, *The Origin and Destiny of Man*, Nutley, N.J.,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4, p.34.

110) Inst., I. 5. 7.

111) Inst., I. 5. 8.

112) Inst., I. 5. 6.

나님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맞춰 처리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모두 혼란하게 하시며,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궤환에 빠지게 하실 때”¹¹³⁾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사역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이고 적극적이다. 칼빈의 지식 관에는 그의 개인적 경험, 특별히 자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영향이 적지 않았다.

113) Inst., I. 5. 8.

II. 神知識에 미친 罪의 영향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데는 심오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이 반영된 존재로서 진실로 가장 훌륭하고 가장 명백한 하나님의 반영인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적이며 의지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이다.¹¹⁴⁾ 또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계시의 명료성에 대한 이 강조는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의미있는 강조 중의 하나이다.¹¹⁵⁾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알 되 충분히 알지 못한다. 이것은 어떤 일부의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그 사역(works)과 행위(deeds)에서 전시된 하나님의 계시를 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로인해 인간의 정신구조 속에 깊이 간직된 神知識이 무디어지거나 거의 말살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¹¹⁶⁾ 그래서 지금 우리의 관심사는 하나님 지식과 관련하여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 속에 유발된 죄의 지적 영향에 관한 칼빈의 교리이다. 이제부터 하나님 의식 그리고 양심과 현상계에서 보여주신 계시와 관련하여 죄가 神知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A. 神意識에 미친 죄의 영향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본성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

114) Sinclair Ferguson, 박형용 역,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적 삶의 방식,” 신학정론(제16집), 1990.12, p. 390.

115) Ibid., pp. 359-360.

116) 신복윤, op. cit., 1990.12, 제16집, p. 390.

게 은사로 부여된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써 타락하여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막혀 버렸다.

칼빈은 타락 후 인간의 神형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전멸되거나 말살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容認한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심하게 부패하였으므로 남아있는 것은 무서울 정도로 기형적인 것들이다”¹¹⁷⁾라고 하였다. 분명히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잔존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잔존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가이다.

인간에게는 고유하고 보편적이며 지울 수 없는 하나님 의식이 있다. 이것은 기독교강요 제1권 3장의 요지라고 할 수 있다. 이 3장에서 칼빈은 인간의 현재의 타락한 모습을 말하고, 타락 이전의 인간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 장인 4장에서는 칼빈은 하나님 의식을 말하면서 그 4장의 제목을 “이 지식은 부분적으로는 無知, 부분적으로는 惡意로 말미암아 질식 혹은 부패되었다”라고 생생하게 붙였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주셨다는 사실은 경험이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이 씨앗을 마음에 소중히 키우고 있는 사람은 백 사람 가운데 겨우 한 사람도 찾아 보기 힘들다. 더우기 그것을 무르익게 해서 때가 되어 열매를 맺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시 1:3 참고). 게다가 어떤 사람은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악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그 결과 이 세상에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¹¹⁸⁾

117) Inst., I. 15. 4.

118) Inst., I. 4. 1.

인간의 타락 형태는 심각하고 다양하다.

마침내 그들은 거대한 오류에 그들 자신을 얽어 맴으로써 한 때 하나님 영광을 보이기 위해 번쩍이던 그 섬광을 우매한 죄악으로 질식시켜 마침내는 꺼지게 한다. 그러나 그 씨앗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결코 근절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神性에 대한 어떤 관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씨앗은 매우 부패하였기 때문에 가장 나쁜 열매를 맺을 뿐이다.¹¹⁹⁾

그러므로 *sensus divinitatis*(神知識)를 남용할 때, 우리는 더 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떠날 수 없다. 그러나 그 지식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지식이거나 혹은 언약적인 지식이 아닌 반역적인 지식이다. 그래서 바울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 특징지었다(고전 1:21, 갈 4:8, 살전 4:5). 그들은 진리를 억누르고 하나님을 거짓과 바꾸어 버렸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바울의 이 진술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거짓과 바꾸어 버렸다. 물론 여기에 나온 “거짓”은 창세기 3장의 이야기에 대한 암시이다. 하와가 유혹받게 된 그 거짓은 “너는 정녕 죽지 않으리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상의 뜻을 가진다. 왜냐하면 하와를 속인 사단의 동기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인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계시를 왜곡시켰고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왜곡시킨 것이다.¹²⁰⁾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대치되었던 “거짓”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한 것이다. 그 결과 인류는 하나님에 대해 왜곡된 견해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역적인 마음을 갖게 된

119) *Inst.*, I. 4. 4.

120) Sinclair Ferguson, *op. cit.*, pp. 360-361.

것이다.¹²¹⁾

그러므로 종교의 씨앗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그것은 칼빈이 말하고 있는 종교, 즉 믿음, 두려움, 경외, 그리고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예배로 구성되는 그런 종교와는 전적으로 다른 종교를 가져왔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것은 종교의 공허하며 거짓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아니 종교의 그림자라고 부를 가치조차도 없는 것이다.”¹²²⁾

칼빈은 타락한 인간에게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무지, 혹은 맹목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시종일관하게 무지야말로 죄의 결과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그들의 무지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맹목은 항상 교만, 허영, 그리고 완고함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이다.¹²³⁾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만물의 메시지를 부패케 했기 때문에, 만사가 우리를 도와 지식을 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만물의 불충족성의 원인은 그것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에게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핑계할 수 없는 것이다.¹²⁴⁾

위에서 인용한 여러 인용문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식이 멸절되거나 부패하였다는 것, 인간은 고의적으로 악하게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 인간은 자신이 받은 것을 소중히 양육하지 못했다는 것,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기억을 쫓아 버리고, 공의와 섭리와 영광을

121) Ibid.

122) Inst., I. 4. 4.

123) Inst., I. 4. 1.

124) Inst., I. 5. 14-15.

하나님으로부터 박탈하였다는 것,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등이다.¹²⁵⁾

칼빈은 이렇게 죄의 지적인 영향을 최악의 경우로 말할 때에도 이것이 인간의 무지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은 오히려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악용하고 있는 존재라고 단정한다.

B. 양심 및 인간의 知的 기능에 미친 죄의 영향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잔재가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동물로부터 구별하는 이성과 의지의 기능인 인간성이라고 보았다. 이 인간성에 이성, 양심, 책임성, 하나님과의 관계, 언어, 전 문화 생활 등이 포함된다.¹²⁶⁾ 그러나 이 이성마저도 부패하여서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인간에게 타락 후에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神認識과 天上의 생활을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인간의 이성은 맹목이 되었고 마음은 악하게 변하였고 全性質은 부패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새로운 의지를 창조할 때까지는 죄를 범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못한다.¹²⁷⁾

창조를 논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적인 하나님 지식의 하나인 양심에서의 지식도 다른 모든 형태의 자연계시와 마찬가지로 죄의 해로운 영향을 전적으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양심에서 주어진 하나님 지식(神知識)에 미친 죄의 영향은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자연계시에 미친 영향보다 훨씬 더 파괴적이고 심각하다. 이 사실을 칼빈이 주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타락한 인간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한

125) Ibid.

126) Inst., II. 2. 12.

127) 최명근, op. cit., p.42.

구실을 무지로 내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데 있다. “만일 이방인이 그 본성에 따라 그 마음에 율법의 의가 새겨져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연법에 따라 인간이 충분히 생활의 바른 법칙을 배운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롬 2:14,15).”¹²⁸⁾ 위와 같은 내용에서 보듯이 무지에 대한 변명의 여지를 인간에게 주지 않고도 남음이 있다. ¹²⁹⁾ 따라서 죄인이 “자기 마음에 심어진 선악에 관한 지식을 피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다만 무지 때문에 범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¹³⁰⁾ 또한 이러한 자연법이 사람들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 자연법이 양심의 명령에서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양심을 사람이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명백하게 한다.¹³¹⁾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진정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람은 오류의 암흑에 덮혀 있기 때문에, 자연법에 의해서는 어떤 경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¹³²⁾ 본질적으로 죄가 인간을 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은 더이상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인식하는 영적 恩雎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으며, 더욱이 인간이 계속해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자연법의 통찰력을 다소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자연법은 인간이 자신의 무지를 구실로 삼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증거에 의하여 유죄(有罪)를 증명한다.¹³³⁾ 사실 神意識이나 창조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지식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무지와 율법의 왜곡에 대한 원인은 바로 죄이

128) Inst., II. 2. 23.

129) Ibid.

130) Ibid.

131) Inst., II. 2. 22.

132) Inst., II. 8. 1.

133) Inst., II. 2. 22.

다. 칼빈은 “사람의 자연적인 재능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다”¹³⁴⁾라고 한 어거스틴의 주장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추가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악을 구별하여 사물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이성을 자연적인 재능으로, 이것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나 일부분은 약화되고, 일부분은 부패하여 기형적인 잔해가 남아있을 뿐이다.¹³⁵⁾ 이 무지는 원죄의 결과로써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다. 더우기 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의 결과로 일어난다. 그러나 죄는 양심에서 주어진 하나님 지식에는 파괴적인 영향을 적게 미친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도 어느 정도 남아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효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¹³⁶⁾ 마지막으로 그는 로마서 2:14-16 에서 명백하고도 비증있는 결정적인 자료로 제시하였다. 이는 롬1:21 에서도 입증해 준다. 이 두 구절이 그의 마음을 묶어 인간이 책임을 지는 존재라면 마땅히 율법을 알아야 한다는 확신을 그로 하여금 갖게 하였다. 그는 성경에서 양심에 미친 죄의 영향을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지적 기능에 미친 죄의 영향은 어떠한가?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창조물과의 조화를 죄로 말미암아 깨뜨려 버렸으므로 우주의 참된 의미인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¹³⁷⁾ 인간에게 있는 자연적 은사는 죄(罪)로 말미암아 부패되었지만, 초자연적인 은사는 전적으로 박탈당하였다고 칼빈은 말한다.¹³⁸⁾

타락의 문제는 필연적으로 원죄의 문제와 불가분리의 관계가 있다. 칼빈은 원죄를 인간의 본성의 유전적 타락과 부패로 보고 있다.¹³⁹⁾ 그러므로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손실된 후 그는 하나님

134) Inst., II. 2. 12.

135) Ibid.

136) Inst., II. 2. 22.

137) T.H.L.Parker, op. cit., p.27.

138) Inst., II. 2. 12.

139) Inst., II. 1. 8.

으로부터 받았던 지혜, 미덕, 의, 진리, 거룩함 등과 같은 축복의 장식품을 제거당하고 그 대신 악질, 전염병, 맹목성, 허약, 불신, 불의 등 나쁜 것으로 장식하는 벌을 자기 혼자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후손 전체도 받게 하여 그들을 비참한 악의 함정에 빠뜨리고 만 것이다.¹⁴⁰⁾ 이것이 곧 유전적 부패라는 것이다. 지적 기능 또한 양심의 기능에 미친 죄의 영향과 마찬가지로 타락과 부패로 인해 참된 의미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인식하기 어렵다. 오히려 양심에 끼친 죄의 영향보다 인간의 지적 기능에 미친 죄의 영향이 더 현저하여서 인간의 타락성과 부패성을 더 많이 보여 준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C. 현상계에 미친 죄의 영향

기독교강요 제1권 5장에서 칼빈은 현상계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 지식을 다룬다. 그는 하나님의 事役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를 논한다. 그 다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역이라는 거울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원한 나라를 아주 명백하게 보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그 뚜렷한 증거들을 보면서도 점점 더 우둔하여져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¹⁴¹⁾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사실 자연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매일 같이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하여 말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섭리로 지배를 받는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운명에 의하여 회전된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는가?”¹⁴²⁾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를 생각할 때 이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다만 하나님의 사역 그 자체로만 만족하기 일쑤이다.

140) Inst., II. 1. 5.

141) Inst., I. 5. 11.

142) Ibid.

비록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의 생각을 끌어내어 창조세계를 뛰어넘게 할 지라도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생각할 뿐이다.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특수한 오류를 만들어 낸다고 말하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기괴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위해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버리는데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이 동일하다. 凡人이나 둔한 자만이 아니라 가장 탁월하고 다른 일에 있어서는 예리한 식별력을 가진 자라도 다같이 이와 같은 질병에 걸려 있다.”¹⁴³⁾ 가장 미련한 사람들처럼 행한 철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종교적이며, 가장 신중했던 플라톤 역시 자신이 생각해 낸 球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¹⁴⁴⁾ 칼빈은 이 사실을 시편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하늘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지만, 그 증거는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배우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얻게 하지 못한다. 그것은 다만 인간으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뿐이다. 물론 우리가 아주 둔하고 어리석지만 았다면, 세계라는 광장에서 볼 수 있는 神格의 서명과 증거가 너무도 풍부해서, 그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하며 경외하도록 하는데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위에 것처럼 밝은 빛이 에워싸고 있지만, 눈이 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찬란한 표현도,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¹⁴⁵⁾ 칼빈의 자연계시에 대한 판단은 성경의 특별계시 이해에 기초하고 있다. 현상계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포함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공급해 주기에 충분하나 원리에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 한편 그 자체의 제한성과 불완전성을 드러내 주기도 한다.¹⁴⁶⁾ 그래서 자연계시(일반계시)의 불충분성이 거론되는 것이다. 칼빈

143) Ibid.

144) Ibid.

145) 시편 19:7 주석.

은 모든 계시에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은 축복이지만,¹⁴⁷⁾ 인간들의 죄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의 이 계시의 효과는 인간의 허물을 더 깊게 해 준다¹⁴⁸⁾고 하였다. 하나님은 하나 하나의 役事에서 그의 틀림없는 영광의 표를 새겨 놓으셨으며 그것이 너무 분명하고 독특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둔하고 무식한 자라 할지라도 무식해서 모른다는 핑계를 할 수 없게 하셨다.¹⁴⁹⁾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에 대한 증거는 하늘과 땅에 무수히 많이 있으므로 우리의 눈만 뜨면 언제든지 그 증거를 볼 수 있다.¹⁵⁰⁾ 뿐만 아니라 인체의 구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알 수 있다.¹⁵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러한 계시를 인간의 지혜로써 다 알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물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 만물에 보여 알게 되나니”(롬 1:19-20)라고 한 말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볼 때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이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뜻이다. 이상으로 보건대 창조의 역사는 수 많은 밝은 등불을 켜서 창조주의 영광을 비추어 주고 있지만 옳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만큼 절대로 충분하지는 못하다.¹⁵²⁾ 칼빈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와 같이 분명히 나타내 보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으로 별로 유익을 얻지 못하였다. 자연종교로써는 아무도 하나님에 관한 참 지식을 얻는 사람이 없다. 인간은 혹은 미신에 빠지고 혹은 악에 침륜 되

146) 신윤복, *op. cit.*, p. 402.

147) *Inst.*, I. 10. 2.

148) *Inst.*, I. 6. 1.

149) *Inst.*, I. 5. 1.

150) *Inst.*, I. 5. 1.

151) *Inst.*, I. 5. 3.

152) *Inst.*, I. 5. 14.

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므로 환상과 꿈과 상상하여 만든 허구물(虛構物)을 숭상하게 되었다.¹⁵³⁾ 하나님께서는 도처에 그의 영광을 모두 나타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실로 백사람 가운데서 거의 한사람도 이를 보는 사람이 없다¹⁵⁴⁾고 칼빈은 말하였다.

결론적으로 숙고해 볼 때, 일반계시(자연계시)는 하나님 지식을 나타내 주기에는 불충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으로는 罪로 인해 타락되고 부패된 피조세계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어지는 지식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특별계시에 의해서이다. 다음으로 이 특별계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자.

153) Inst., I. 4. 1.

154) Inst., I. 5. 8.

Ⅲ.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우리는 이제껏 창조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그 자연계시(일반계시)에 미친 인간의 죄의 영향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제 일반계시와 함께 성경에서 구체화된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고찰해 본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일반계시는 흐려지고 부패해졌다. 그리하여 자연과 인간의 구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숨씨는 처음 창조되었을 때 처럼 분명하게 읽을 수 없게 되었다.¹⁵⁵⁾ 더우기 인간은 암흑과 무지, 오류와 불신앙의 권세에 종속되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의 맹목과 왜곡 속에서, 인간은 현재 그 최초 계시의 흔적까지도 바로 읽을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허위로 바꾸어 놓는데 기뻐하고 있다. 이리하여 일반계시는 이 이상 더 하나님과 영적 사물에 관한 믿을 만한 절대적인 지식을 인간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또한 인간에게 올바르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계시는 인간을 하나님과의 친교상태에까지 회복시킴에 아무 소용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속하시고 자기와 더불어 영적인 친교를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계시해 주시는 특별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특별계시의 방법은 대략 세 가지 종류로 구별된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顯現”을 들 수 있다. 하나님의 현현은 성경 도처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그 최정점에 달하였다.¹⁵⁶⁾ 둘째로 하나님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인간에게 그의 사상과 의지를 전달하셨다. 곧 예언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계시의 대상

155) L. Berkhof, op. cit., pp. 31-32.

156) Ibid., pp. 32-33.

에게 말씀하셨다(창 2:16, 3:18-19, 4:6-15, 9:1,8,12, 32:26, 출 19:9, 신 5:4,5, 삼상 3:4 등). 어떤 때는 꿈을 통해서(민 12:6, 신 13:1-6, 삼상 28:6, 요엘 2:28), 환상을 통해서(사 6장, 21:6 이하, 겔 1-3장, 8-11장, 단 1:7, 2:17, 2:19, 암 7-9장)도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셨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계시의 영”을 통해서, 내적 조명의 방법을 써서 선지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¹⁵⁷⁾ 셋째로 하나님은 이적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적은 하나님의 특별 권능의 현현이며 특별 임재의 상징인 것이다.¹⁵⁸⁾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결과적으로 자연과 역사 그리고 인간의 마음과 양심에 있는 그의 일반계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인간의 모든 잘못 때문에 어두워진 일반계시의 순수한 내용을 정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계시 본래의 가치를 되찾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성경의 빛에 의해서 일반계시가 인간의 전 생활 영역을 위하여 풍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한다.¹⁵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래의 위치를 되찾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는데는 불충분하고 부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바빙크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러한 無言의 교사들만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거룩한 입을 열어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들 일반적인 실물교육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 족장들이 이 말씀을 도움으로 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한 지식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다¹⁶⁰⁾고 하면서 칼빈은 특별계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157) Ibid., pp. 33-34.

158) Ibid., p. 34.

159) Herman Bavinck, op. cit., p. 62.

160) Inst., I. 6. 1.

워필드(B.B. Warfield)박사는 말하기를 啓示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모든 지성적 피조물에게 일반적으로 전해지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알게 하시려는 특별한 부류의 죄인들에게 전해진다. 전자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대한 피조물들의 자연적 필요에 응하고 공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후자는 깨어지고 불구가 된 죄인들을 그들의 죄와 그 결과로부터 구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¹⁶¹⁾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계시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하셨는가 ?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말씀과 환상(Oracles and Visions)으로 조상들에게 계시하셨던지, 사람들의 사역을 통해 전하셨던지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계시의 정확성이 그들 마음판단에 확실하게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받은 바 계시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¹⁶²⁾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우주의 공간 속에서나 인간의 마음이나 역사 속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신의 현현이나 이적이나 말씀을 통한 특별계시를 주신 것이다.

이 구속주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객관적인 계시(성경)와 주관적인 계시(성령의 내적증거)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객관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성경(특별계시)의 기록 이전과 그 이후의 권위와 영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A. 객관적 지식

161) B.B. Warfield, *The Inspiration and Authority of The Bible*, edited by Samuel G. Craig,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0, p. 74.

162) Inst., I. 6. 2.

객관적 지식을 제공해 주는 성경은 왜 기록되어야 했을까?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는 마땅히 우리를 세계의 창조주 앞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하나의 훌륭한 조력자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게 하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말씀의 빛을 가하여 주셨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더불어 더 가깝고 더 친밀하게 연합하려는 자들에게 이 특권과 영광을 차지하게 하셨다.”¹⁶³⁾ 그는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노인이나 눈이 어두워진 사람에게는 비록 가장 아름다운 책을 보여줄지라도 그것이 혹시 무슨 글이 쓰여져 있는 책으로는 느낄지 모르나 거의 두 글자도 읽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경(眼鏡)의 도움을 얻으면 분명하게 읽어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혼란한 관념들을 우리 마음에서 하나로 집중시키고 흑암을 쫓아버리며 참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견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¹⁶⁴⁾라고 하였다.

그리고 칼빈은 성경이 문서화(文書化)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여 말하기를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이 배은망덕하여 하나님을 잊기 잘하고, 모든 종류의 오류에 빠지기를 잘하며, 수시로 새로운 거짓 종교를 만들기를 얼마나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교리의 창고를 만드는 것이 아주 필요함을 곧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교리가 인간의 나태함과 오류때문에 무산되거나 인간의 주제넘는 오만불손 때문에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¹⁶⁵⁾고 하였다.

바울은 삼층천에 끌리어 올라갔다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율법과 선지자의 교리를 연구하였다. 동시에 그는 탁월한 교사 디모테에게도 “읽는 것에 착념하라”(딤후 4:13)고 권고하였다. 더욱이 그의 성경에 대한 찬사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딤후

163) Inst., I. 6. 1.

164) Ibid.

165) Inst., I. 6. 3.

3:16,17)는 말씀이다.¹⁶⁶⁾

그러면 이제 이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해 기록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 성경기록 이전(以前)

성경 기록 이전의 특별계시는 성경보다 광범위하다. 엄격히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다 표현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꼭 필요한 내용만 기록한 것이다.

칼빈은 히브리서 1:1,2 의 주석에서 기록된 성경 이전에도 특별계시가 다양하게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옛 교회에 계시하셨다고 하였다. 여기 “여러 부분”이란 말은 시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으로 “여러 시대를 거쳐서” 라는 말로 생각할 수 있고 “여러 모양”으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나 형식 자체가 다양하다는 것을 가리킨다¹⁶⁷⁾고 하였다. 다시 말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가지 방식이나 형식으로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아담에게 주신 언약, 노아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출애굽이란 역사적인 대사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러가지 율법, 제사법 제도등 그후 예언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등 각양 형태의 계시가 있었다. 이것들은 분명히 책이 아니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계시이지만 성경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성경으로 남아 후대의 교회, 보편 교회를 위하여 계시로서 보존됨으로써 성경은 우

166) Inst., I. 9. 1.

167) 히브리서 1:1-2 주석.

리에게 더할 수 없이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계시는 성경보다 큰 그릇이어서 성경이 계시속에 들어 올 수는 있어도 계시가 성경 속에 포함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¹⁶⁸⁾

칼빈은 말하기를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 아니다. 그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자기네 조상으로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전통으로 받은 그 하나님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맺은 언약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다”¹⁶⁹⁾라고 하였다. 칼빈의 이 말은 모세가 성경을 기록하기 이전에도 분명히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곧 유대인들은 글로 기록되지 않은 구전이나 전통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유다서 14절에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라고 했다.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말하기를 “나는 이것을 계시 문학에서 인용된 것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예언으로 생각한다.... ‘아담의 칠대손’ 이라고 분명히 밝힌 것은 이 예언의 역사가 홍수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정도로 오래되었다는 뜻이다. 이 예언이 유대인들 사회에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왔다는 나의 의견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이 있다 해도 나는 거기에 꾀념하지 않겠다”¹⁷⁰⁾라고 하였다. 칼빈은 여기서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조상들이 받은 특별 계시가 구전으로 내려왔다고 하였다. 그는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직접 말씀이나 환상, 인간의 사역을 통하여 또는 후에 직접 그 후손들에게 증거하셨다”¹⁷¹⁾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모든 시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168) 신학지남, 제43권 4집(통권175호), 1976. 과 “계시와 성경”, p. 66.

169) Inst., I. 8. 1.

170) 유다서 14절 주석.

171) Inst., I. 6. 2.

교훈하여 이 세상에 존속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족장들에게 맡기셨던 그 말씀을 공공연히 서판(書板)에 기록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2. 특별계시

하나님의 특별계시는 성경에서 영원한 형태를 취하여 우리를 위해서 보존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시가 인간의 모든 세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영원한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계시는 마땅히 훼손과 부패와 허위에서 보호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계시가 문서의 형식을 취한 것이 성경인 것이다.¹⁷²⁾ 계시의 성문화의 필요성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이 멀어진데서 기인한다. 우리는 특별계시, 즉 성문화된 대로의 성경을 정확히 말해서 치유로서가 아니라, 일반계시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둔해진 인간에게 조력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성문화된 특별계시로서의 성경의 기능은 영적으로 둔해진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영적 안경의 역할을 하는데 있는 것이다.

2.1. 성경의 영감

계시의 문제가 “무엇을” 전달했는가의 문제라고 한다면, 성경의 영감의 문제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되었는가 하는 과정의 문제이다.¹⁷³⁾ 성경의 영감 문제를 보여 주는 칼빈의 표현은 다양하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¹⁷⁴⁾ 성경 기자는 “성령의 도구로써

172) Inst., I. 6. 2-3.

173) Edward A. Dowey Jr., op. cit., p.90.

(as organ of the holy spirit) 하늘로부터 명령되었을 것들을 말했을 뿐이다.”¹⁷⁵⁾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하여 기록했다.”¹⁷⁶⁾ 칼빈은 성경의 영감사상이 극히 당연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따로 항목을 세워 논하고 있지는 않다.

칼빈이 영감사상, 특별히 그가 성경의 완전축자영감(完全逐子靈感)을 지지했다는 근거는 그의 기독교강요 뿐만 아니라 그의 주석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15 의 주석에서는 칼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바울이 성경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먼저 성경의 권위 때문이요, 다음으로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 때문이다. 그는 성경의 권위를 지지하기 위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영감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 누구나 논쟁의 여지없이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구별해 주는 원리는 바로 이것이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선지자들이 자기들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도구로써” 하늘로부터 명령되어진 것들을 말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서 유익을 얻고자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과 같은 것을 원칙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율법과 선지서들은 인간의 뜻을 따라 전달된 교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구수(口授)된대로 받아들인 교리이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들로부터 받은 성경 말씀을 임의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말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분은 사실은 하나님의 입 자체라고 담대하고 두려움없이 증거했다.

베드로후서 1:20 에 관한 주석에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74) Inst., IV. 8. 1.

175) 디모데후서 3:16 주석.

176) 베드로후서 1:20 주석.

“예언들은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요, 인간의 사사로운 생각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한다. 베드로는 특별히 권하여 선지자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으라고 강조한다.” 칼빈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었다고 했지만 그들의 주체성마저 상실해 버렸다고는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다만 그들의 입술을 지배하신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다”¹⁷⁷⁾라고 하였다.

칼빈은 또 이사야 40:6 의 주해에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입’ 역할을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하도록 위임된 내용을 되풀이할 뿐이다”¹⁷⁸⁾라고 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18 의 주해에서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그의 다섯 권의 책을 하나님의 靈의 지도를 받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 썼다는 점을 알 수 있다”¹⁷⁹⁾고 하였다.

이상에서 보는데로 칼빈은 분명히 성경의 完全逐字靈感¹⁸⁰⁾을 믿었다.

177) 베드로후서 1:20 주석.

178) 최명근, op. cit., p. 68.

179) 신명기 31:18 주석.

180) 성경은 축자적(逐字的)으로 영감되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 말이 기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말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대자들이 이들을 똑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축자영감교리에서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단어를 무시, 또는 문체와 표현의 개성을 억제하지 않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떤 학자는 이 학설을 기계적 영감설과 동일시 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완전영감설(完全靈感說 Plenary Inspir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B. B. Warfield는 영감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교회는 시초부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했다. 그 이유는 성경이 비록 사람의 손으로 써졌고 인간의 선조와 그들의 발자취에 대하여 썼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의지를 알맞게 표현할 수 있는 역사로 써졌기 때문이다. 성령과 인간의 공저 개념은 성령의 감독하에 사람으로 하여금 단어를 선택하게 하고(축자영감) 성령이 또한

다우이(E.A.Dowey)는 “칼빈의 저서들 중에서는 원본 성경의 유오성(有誤性)을 암시하는 어떤 흔적도 찾아 볼 수 없다.” 우리가 인식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칼빈에 의하면 성경은 그것이 축자적이든 또는 비유적 기록에 의해서든지 간에 결과는 원본에 있어서 무오한 일련의 문서들이 되도록 주어졌다는 점이다”¹⁸¹⁾라고 하였다.

케네쓰 칸저(Kenneth S.Kantzer)는 “칼빈이 엄격한 정통적 축자영감교리를 지지했음을 입증해 주는 증거는 너무도 분명한 것이어서 그 입장을 새삼스럽게 밝혀 내려는 노력은 거의 쓸모없는 노력에 불과한 것 같다”¹⁸²⁾고 말함으로써 칼빈의 교리를 더 확고히 해 주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칼빈에 의하면, 중요한 것은 성경은 문자적 혹은 비유적 구술(口述, dictation)에 의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는 원본에서 오류없는 문서라는 점이다.¹⁸³⁾

그러나 사람들은 칼빈이 성경영감에 대한 보다 자유로운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두메르그(Emil Doumergue)는 칼빈이 기계적 또는 축자적 영감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칼빈은 다만 성경이 성령에 의해 영감되었다는 것, 그러므로 그것은 신앙문제와 관계된다고 가르쳤을 뿐이라고 한다. 헵페(Heppe)는 주장하기를, 칼빈은 많은 계시와 말씀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자(聖子)에게서 선포된 말씀과 그리고 기록된 성경을 구별지었다고 한다. 칼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이요, 하나님 계시의 씌어진 기록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¹⁸⁴⁾ 헵페(Heppe)에 의하면, 성경의 권위는 씌어진 기록의 형식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교리, 계시적 사실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성경 기록자에 의해 어디서나 주장해 온 모든 진리를 잘 보호한다는 뜻이다.”(무오류)

181) Edward A. Dowey, op. cit., pp. 100-101.

182) 최명근, op. cit., p. 71.

183) Edward A. Dowey, op. cit., pp. 101-102.

184) 신복윤, “칼빈의 성경관”, 신학정론(제19집), 1992. 12, p. 341.

있으며, 이들 중에는 믿을 만한 증거도 있으나 잘못된 증거도 있다고 한다.¹⁸⁵⁾ 니젤(Wilhelm Niesel)도 역시 칼빈은 문자적(축자적) 영감교리를 믿지 않았다고 단정한다.¹⁸⁶⁾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칼빈이 성경영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간단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모세 오경 주석 서론에서 “모세는 여기서 자신의 예언을 말하지 않고, 다만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공표하는데 성령의 기구일 뿐이었다”¹⁸⁷⁾고 하였다.

예레미야가 이전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룩으로 하여금 받아 쓰게 한 사실에 대하여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 선지자가 전해 받은 말씀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신 것이 틀림없다. 이는 우리들도 이전에 전해서 들은 말을 항상 기억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많은 예언의 말씀이 사라졌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말하자면 하나님과 바룩 사이에 서 있었다. 하나님은 영(靈)으로서 선지자의 마음과 입을 주관하셨다.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고 인도되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말했으며,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선포했던 그 예언의 전부를 바룩이 받아 씀으로써 기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¹⁸⁸⁾ 성령의 영감에는 이렇게 그 의미와 전달 방법, 심지어는 복음서 기자들의 언어와 문체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위의 반론과 그 반론에 성경의 무오성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찾아 보았다. 무엇보다도 칼빈은 성경은 전혀 그 안에 인간적인 요소가 없으며, 성경의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그 입으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최종 결론으로 삼아

185) Ibid., p. 342.

186) Ibid.

187) 신복윤, 신학정론, 제17집, op. cit., p.128.

188) Ibid.

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다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다. 그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으므로 원본상에는 전혀 오류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할 때에도 자유롭게 인용하였는데, 이름이 바뀌었다든지, 숫자가 잘못 기록되었다든지, 원래의 뜻과 전혀 어긋나게 인용되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그 뜻을 취하여 인용하는 것은 사도에게는 용납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성경의 무오성을 믿기를 꺼려하는 자들이 사도들이 구약성경을 인용한 부분에 있어서 “이름이 바뀌었다”, “숫자가 잘못 기록되었다”, “말이 반대로 되었다”고 꼬집어 말하는 부분들은 거의가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요, 원본상의 문제라기 보다는 사본상의 문제들인 것이다. 특별히 칼빈은 이 사실을 각 부분마다 힘주어 말하고 있으며 칼빈은 원본상에는 전혀 오류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¹⁸⁹⁾

2.2. 성경의 권위

사실상 하나님의 자연계시를 통해 인간은 성경없이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소 가질 수 있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아무도 무지를 구실로 삼아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의 神的 위엄을 어느 정도나마 알 수 있는 이해력을 각자에게 심어 주셨다.”¹⁹⁰⁾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은 인간의 의지 속에서 질식되었기 때문에 성숙한 지식으로 열매를 맺게 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인간은 스스로가 이러한 상태를 자처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않

189) 최명근, op. cit., p.82.

190) Inst., I. 3. 1.

으셨다. 칼빈의 말대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보다 좋은 도움”¹⁹¹⁾을 마련 하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도움은 말씀의 빛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계시와 행동이다. 하나님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자신의 사역에서,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그 밖의 족장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알게 되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 비록 성경시대 때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중단되고, 인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현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요, 구속주로 알게 하는 수단이며,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임을 가르친다. 칼빈이 인정하는 대로, 성경은 자연이나 이성보다 월등한 조력자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지식을 참된 것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성경에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그것을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이 받아들임의 행위는 인간 자신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성의 힘도 교회의 소리도 성경의 진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을 권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¹⁹²⁾ 교회의 소리가 불충분한 이유는 교회 자체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효과는 神的 저작권 인정 여하에 달려 있으며, 그러한 인정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¹⁹³⁾

성경의 중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칼빈은 이 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이 교리의 저자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고 확신하기 전에는 교리에 대한 신앙이 수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

191) Inst., I. 6. 1.

192) Inst., I. 8. 1.

193) 신복윤, op. cit., p.122.

야 한다.”¹⁹⁴⁾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것을 성경자체가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사실을 칼빈은 확신하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저작임을 自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대하여 말할 때,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불가분리의 관계로 연결시킨다. 이미 우리가 말한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말씀이며, 앞으로도 성령은 계속 그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自證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소생시키는 말씀으로서의 성경에 근거를 둔다.

성경은 그 기원으로 볼 때, 그리고 늘 살아서 신선하게 영혼을 소생시키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이 말한다는 표현과 동의어이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의 가장 거룩한 입을 여시는 것이다.¹⁹⁵⁾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확신한다. ¹⁹⁶⁾ 칼빈은 십계명을 해석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로 하자”고 말하는데서 이 고상한 확신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칼빈은 성경을 만들어내는데 인간의 역할을 최소화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은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저술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특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 神的 저작권의 문제는 자연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될 수 없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자연적 증명은 신앙을 위한 초자연적 기초 대신 자연적 기초를 마련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세력도 성경의 신적 저작 문제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었다. 성경은 수 천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반복하였는데, 이것은 그 저

194) Inst., I. 7. 4.

195) Inst., I. 6. 1.

196) Inst., I. 7. 5.

자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명령하고 있음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칼빈은 답변하기를, 하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은 인간의 마음 속에 심어져 있어서 악인으로 하여금 핑계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자연계시가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보충되고 명백해졌으며, 그 저자들은 “성령의 정확하고 진정한 필기자들”¹⁹⁷⁾이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자. 왜냐하면 힐라리(Hilary)가 말한대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유일하고 충분한 증거이시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려 질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말씀을 떠나 다른 곳에서 그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자신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¹⁹⁸⁾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바른 신학적 사고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기초가 되기도 한다. 칼빈에 있어서 이 둘은 분리 될 수 없다.

B. 주관적 지식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내적 증거는 하나님의 주관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 제1권 7장에서 특별히 성령의 내적 증거를 다루고

197) Inst., IV. 8. 9.

198) Inst., I. 13. 21.

있다. 7장 각절의 개요를 보면, 이 주제는 성경의 권위문제와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슨 증거에 의해서 성경의 절대권위는 확립되어야 하는가? 그것은 곧 성령의 증거이다. 성경의 권위는 확실하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신앙이 교회에의 결정에 의존한다는 것은 불경된 죄(罪)이다. 그리고 7장 첫절에서 칼빈은 말하기를 “여기서 더 상론(詳論)하기 전에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약간의 고찰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경건한 마음으로 용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고 또 모든 의심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¹⁹⁹⁾라고 하였다.

도웨이(E.A.Dowey)도 칼빈의 성경교리를 탁월하게 잘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성경이 본래적인 확실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권위나 그 권위의 한 원천마저도 성립시키지 못한다. 그 권위는 하나님 자신의 내적 증거로부터만 유래한다.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서 본래적 확실성이나 성경말씀의 본래적 진리가 인식되고 확증된다.”²⁰⁰⁾

1. 성령의 내적 증거

칼빈은 기독교 신앙의 인식론은 그 권위가 인간의 마음에서 성경진리를 입증하시는 성령의 증거라고 보았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1권 7장 이하에서 성경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해석하면서 권위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유일하게 성문화(成文化)되어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관하여 그는 말하기를 “성경이 완전한 권위를 신자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이 하늘로부터 말씀되어진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할 때이다”

199) Inst., I. 7. 1.

200) E.A.Dowey, op. cit., p.108.

201)라고 했다. 그러므로 칼빈은 내적 증거(the internal testimony)에서 기인하고 있는 확신(persuasion)을 다루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신자들의 심령 속에 새겨진 권위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이 권위는 성경이 하늘로부터 말씀되어진 것이라고 그들이 확신할 때 주어진다. 그러므로 성경이 하늘에서 기원한다고 하는 인식만이 그 확신을 일으켜 준다. 그러나 이 천국으로부터의 기원 자체가 사실은 인식된 권위(the authority recognized)를 성경에 부여해 준다.²⁰²⁾

칼빈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다룰 때는 반드시 우리의 확신(persuasion)과 이 확신을 가능케 한 성령의 사역에 관련지워져 있다. 다시 말하면 내적 증거는 우리의 마음이 확신을 갖는데 유용하다. 또한 성경 진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인간의 억측이나 판단이나 이성 따위 보다 높은 근원 즉 성령의 감추인 증거로부터 기인되지 않으면 안된다.²⁰³⁾

그러므로 성령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전적으로 성경을 승인하게 되고, 성경은 그 자신이 스스로 증거하고 있으므로 증명이나 논증에 붙여질 것이 아니요, 성령의 증거에 의하여 우리가 받아 들여야 그 확실성을 얻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은 그 자체의 권위에 의해서 인간의 존경을 받고 있으나, 성령에 의하여 우리 마음에 인쳐질 때에만 우리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곧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조명을 받을 때에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게 된다. 우리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는 결코 믿을 수가 없다. 즉 인간의 판단을 초월하는 방법으로만이 우리는 의심없이 확신할 수 있다. 즉 성경이 인간들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임을 확신하게 된다.²⁰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것 만이 참

201) Inst., I. 7. 1.

202) 최명근, op. cit., p.86.

203) Inst., I. 7. 4.

204) Inst., I. 7. 5.

된 신앙임을 알아야 한다.²⁰⁵⁾

요한일서 2:27 에 관한 주석에서 칼빈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거짓된 자들에게 속지 않고 또 의심으로 인하여 망서리거나 혼란에 빠져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그의 판단력과 분별력으로 잘 다스려 주신다”고 말한다.²⁰⁶⁾

칼빈은 그것을 영혼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밀한”²⁰⁷⁾, “내적”²⁰⁸⁾, 또는 “내부적”²⁰⁹⁾ 행위라고 말하고, 우리는 성령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영혼이 “깨우침을 받아”²¹⁰⁾ 하나님의 책으로서의 성경의 진정한 특성을 깨닫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 대한 전적인 默從을 낳게 하는 성령의 “내적 가르침”이라 하고,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향해 자증(自證)하게 되는 것으로 믿는다.²¹¹⁾ 우리는 또한 이것을 가리켜 “성경의 은밀한 증거”라고도 한다. 이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은 모든 이론을 훨씬 능가하며,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²¹²⁾ 정확히 말해서 영혼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내적 사역으로 생기는 것은 새로운 영적 자각²¹³⁾인데, 이 자각으로 인해서 성경이 神的 저작임을 직관적 자각에 의해서 이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 진리의 명백한 증거를, 마치 흰 것과 그 검은 것이 그 색깔이 다르듯이 또한 단 것과 쓴 것이 그 맛이 다르듯이 분명하게 나타낸다.²¹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서만 주어지는 의식이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성령의 창조적 행위에 의하여 하나님에

205) Ibid.

206) 요한일서 2:27 주석.

207) Inst., I. 7. 4.

208) Ibid. ; Inst., I. 8. 13.

209) Inst., I. 7. 5.

210) Inst., I. 7. 3, 4, 5.

211) Inst., I. 7. 5.

212) Inst., I. 7. 4.

213) Inst., I. 7. 5.

214) Inst., I. 7. 2.

대한 의식이 심어지고 그 판단도 역시 직접적이며 결정적이다. 즉 영적 인간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진리의 지식에 관한 한, 우리는 말씀없이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 처럼, 성령없이도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와 관계된 성령의 전체 기능은 새로운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계시된 말씀을 효과적으로 확증하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있기 때문이다.²¹⁵⁾

칼빈은 이것을 기독교 강요 제1권 9장 3절에서 아주 명백하게 실례를 들어 교육적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칼빈은, 성령의 증거를 새로운 계시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 사역은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계시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시와의 관계에서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임을 아주 명백히 하였다.

칼빈의 공식은 말씀과 성령이다. 그리고 내적 증거의 기능이란 내적이란 말이 뜻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성경의 본래적으로 성경된 것에 합당한 확신(persuasion, assurance, conviction)을 갖도록 하는 작용이라는 사실이다. 말씀은 객관적 요소를 공급하고, 성령은 주관적 요소를 공급하여서 두 가지가 연합할 때에만 인간에게 神知識이 가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확실해진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 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택함받은 그의 백성들, 즉 “그가 유익한 교훈을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사람들”²¹⁶⁾을 위하여서 정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성령의 증거와 그리스도인의 경험

215) Inst., I. 9. 3.

216) Inst., I. 6. 3.

성경의 독특한 사역을 믿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 칼빈에 있어서 그 표어는 자연히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성령의 증거만을 말하거나 또 따로 분리시켜서 얘기하지 않고 있듯이 그의 사교의 지평은 의무 의식이나 율법의식에 가득채워진 것 같아 보일 정도로 순종을 강조하고 있다. 칼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갱신되고, 養子의 靈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성장하게 되는 의무의식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대로 하나님의 집의 율법에 따라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할 의무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칼빈이 성경을 하나님의 책으로 인정하고,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중심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靈이 은혜로 그 마음에서 역사하시어, 그 마음을 갱신시켜 영적생활로 인도하신 결과 중의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영혼으로 인도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굳게 존경하고 성령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또 유효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될 때에만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배우지 않고는 아무도 그리스도에 대한 최소한의 참되고 바른지식도 가질 수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²¹⁷⁾

그에 덧붙여 칼빈은 신앙 배후에 마음을 향해 일하시는 성령의 창조적 사역이 있음을 보고, 이 창조적 사역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생기며, 그 행위가 바로 신앙이라고 한다. 인간생활에 나타나는 선한 것들은 모두가 다 초자연적 기원을 가진다는 것이 칼빈사상을 특징짓고 있는 그의 심원한 의식이다.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이는 신앙의 행위는 신자 자신의 행위이며, 또한 그 가장 깊은 내부의 자각의 표현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자각 자체는 성령의 창조적 행위의 표현이라는 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는

217) 참고, Inst., I. 9. 3. ; I. 6. 2.

신앙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성령의 증거에 근거를 두고 수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중심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성경의 神의 기원과 그 권위를 신뢰하고, 성경 내용의 계시적 성질은 특수하게 초자연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에 의해서 저술된 책이라는 것이다.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자각의 형식을 통하여 전달되지만, 그것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증거이며, 우리 자각의 증거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칼빈은 이중증거, 즉 우리 자신의 자각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가 있음을 전적으로 확신하였다.²¹⁸⁾ 동시에 그는 이 둘을 구별하면서도 분리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기도 하였다. 이 성령의 증거는 맹목적인 확신을 우리 안에 창조함으로 전달되는 것도 아니고 극히 명제적으로 고안된 계시(propositional revelation)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의식에 일치하게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령의 증거는 우리의 의식과 연합하여 일한다. 위에서 열거했던 성령의 증거, 내적증거, 이중증거 등은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친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열어 그를 진리의 빛으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조명의 역사를 통하여 마음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인정하게 된다.

분명히 성령의 이 증거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사역에서든 말씀에서이든, 하나님의 계시는 유효하게 된다. 성령을 통하여 자신을 자기 백성에게 계시하시어, 그가 가르치신 대로만 그를 알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이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아는 하나님 지식은 또한 신빙성 있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지식은 하나님 자신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전한 지식이다. 칼빈은 여기에다가 자신의 神學的 구조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다.

218) 로마서 8:16 주석.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사역과 행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일반계시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경험의 범위는 성경 밖에서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초자연적 계시가 없다는 칼빈의 말에서 찾을 수 있다.

그가 인정하는 자연신학의 범위에는 일반계시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자연인인 인간에게서 특별히 성령에 의해 그 마음이 열려지지 않은 인간에게서는 어떠한 신학도 나올 수 없다고 칼빈은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3. 지적 조명의 수단인 성경

성령은 성경과 함께 사역한다.

칼빈은 성경말씀을 성령의 도구로 설명하였다. 즉, 성령은 성경말씀을 사용하여 사역한다고 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실로 성경은 自意로 말하지 않는(요 16:13)²¹⁹⁾ 영(靈)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과거에 말씀하신 것들을 그들의 마음 속에다 넣어 주시며 암시해 주시는 영인 것이다. 다만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다가 아로 새겨 주는데 있는 것이다.²²⁰⁾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다.²²¹⁾ 거짓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절대성에 반대하여 율법을 천거하여 백성들로부터 주도신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을 신자들 마음 속에 기록하여 그 내부 심령 속에 새기도록 계약하신 새 언약(렘 31:33) 즉 신앙의 축복을 박탈하였던 자들이다.

219) 요한복음 16: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自意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220) Inst., I. 9. 1.

221) Inst., I. 9. 2.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끊어져 마음 속에 감동이 없이 귀에만 들릴 때 그 글자인 율법은 죽은 것이요, 그 독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성령에 의하여 심령 속에 감동을 주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준다면, 그것은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요(빌 2:16),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시 19:7) 말씀인 것이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전도하는 일을 靈의 직분(고후 3:8)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그가 성경 속에 표시한 것과 같이 성령께서 자기의 진리와 굳게 결속이 되어 있어 그 말씀이 당연한 명예와 존경을 받을 때만 성령이 자기의 권능을 발휘하신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다.²²²⁾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령을 통해서 자기 말씀을 주신 바 그 동일한 성령을 후에 보내신 것은 그 말씀의 효과적인 확인으로 인해서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려는데 있었던 것이다.²²³⁾ 즉 성령의 내적 조명의 역사도 결국은 성경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영이 참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것은 오직 성경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어떠한 영이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제쳐놓고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면 그것이 야말로 허망하고 거짓된 것으로 생각되어야 마땅할 것이다(갈 1:6-9, 요일 4:1).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고후 11:14) 만일 정확한 표준에 따라 그것을 식별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어떠한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로 성령이 주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지시된 것을 알고 있다²²⁴⁾고 칼빈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결합될 때 이것이 인간의 무지몽매한 마음에 대하여 효과있는 계시가 된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소신이다.

222) Inst., I. 9. 3.

223) 최명근, op. cit., p. 93.

224) Inst., I. 9. 2.

4. 구원과 거듭남(重生)

기독교를 사람들은 구원의 종교 혹은 생명의 종교, 부활 및 영생의 종교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 전체가 죄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밝힌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4.1. 누가, 왜 구원 받아야 하는가?

창세기 6:5-6 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 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고 하였다.

이 말은 원래의 창조 목적(사 43:7, 43:21 참고)과 달리 인간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타락한 상태의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상태(창 3:19)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태에 놓인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죄의 유전이 이루어지게 되고 원래 창조 당시에 받았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놓인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방편을 통해 인간과의 교제 회복의 길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도 그 분이 지으신 인간을 통하여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데 있었지만(사 43:7, 21) 구속하신 목적도 또한 같은 것이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목적도 이 두

가지로 귀결된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 영원성이 회복되고(창 2:17), 둘째로 사역성이 회복되며(요 5:17), 셋째로 거룩성이 회복된다(레 19:2). 마지막으로 통치권이 회복된다(창 1:26)고 했다. 225)

4.2. '구원'이란 말의 의미

사도행전 16:31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해야 마땅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뜻이다.

‘구원’이란 말의 의미는 ① 건진다(사 50:15) ② 살린다(엡 2:1) ③ 씻는다(요일 1:7) ④ 선물을 준다(엡 2:8) ⑤ 자유케 한다(눅 4:18) ⑥ 찾는다(눅 19:10) 등이다. 226)

4.3. 구원의 방법

에베소서 2:1 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데 있다는 것이다.

죄는 로마서 5:12 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한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사람의 죄

225) 이윤근,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구원론, 서울: 성광문화사, 1988, p.31-41.

226) Ibid., p.42-73.

로 아담 자체만 죽은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죄는 자유의지로 지었지만 그로 인하여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은 자유의지로 할 수 없다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낼 방법을 계획하셨다(눅 2:11). 또한 그 독생자를 희생시킬 방법을 계획하셨고(롬 5:8), 성령으로 중생시킬 방법을 계획하셨다(고전 12:3).

IV. 기독교교육에 있어서의 “神知識” 의 필요성

기독교강요 자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 “우리의 모든 지혜에는 - 그것이 진실되고 완전할 경우에 한해서 - 두 가지가 있다. 즉 올바른 神知識(Knowledge of God)과 우리 자신의 지식(Knowledge of ourselves)이다.”²²⁷⁾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인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려고 한다면 우선 우리는 하나님 바로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또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본질을 밝혀 줄 수 있다는 것²²⁸⁾이다.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을 다루는 神知識이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지 기독교교리적인 면(신학적인 면)에서 이 때까지 고찰해 보았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독교교육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神知識, The Knowledge of God)이 왜 필요한가를 고찰해 보도록 하자.

A.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는 “神知識”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원이므로 가장 중요하다. 대대로 인간은 -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한결같이 - 지식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들은 자신에 대하여, 자연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를 알고자 한다. 이렇게 사람들의 본성 속에는 알려고 하는 근본적인 갈망이

227) Inst., I. 1. 1.

228) 헤롤드 나이트, op. cit., p.25.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다루는 학문의 분야가 바로 철학인데, 철학은 인간의 실존과 관계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동시에 해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의 영역이 되는 세계, 자연, 우주, 神을 소재로 하여 이것을 분석하며 탐구하는 기능을 한다.

위와같은 독특한 철학의 기능이 특히 교육분야의 제반문제와 연결될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역과 범주에 관심을 갖는다. 형이상학, 인식론, 가치론, 그리고 논리적 방법론의 문제 등이다. 그 중에서도 인식론은 사물들의 지식에 이르는 과정을 탐구하는 영역이다. 즉 “지식이란 무엇이며,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지식의 조건과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식의 보편성과 다른 지식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등에 관한 지식의 본질과 지식의 형성과정을 다룬다. 일반적으로 지식 형성의 과정은 네 가지 방법, 즉 감각에 의한 방법, 이성에 의한 방법, 직관에 의한 방법, 계시에 의한 방법으로 구분²²⁹⁾한다.

물론 하나님에 관한 지식(神知識)은 위의 네 가지 방법 모두를 다 포함하지만 특별히 계시에 의하여서만 사람은 어느 것이든지 그에 대한 참지식을 얻을 수 있다. 계시(자연계시, 특별계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시고 또한 사람이든지 자연, 물체든지 세상의 사물의 참성질을 알게 나타내 준다.²³⁰⁾

바로 그 계시가 칼빈이 강조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神知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B.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229) 고용수 외 20인,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학회, 1992, p. 50.

230) Edwin H. Palmer, The Holy Spirit, 최낙재 역, 성령,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p. 41.

기독교교육의 내용은 성경의 내용에 기초해서 구원의 선포(Kerygma)와 가르침(Didake)을 포함하는 것이다.²³¹⁾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고서는 기독교교육을 할 수 없다. 교육자나 피교육자 모두가 성경을 연구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또한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장 작은 부분의 성경 진리 또는 구원의 교리라 할지라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²³²⁾ 그래서 칼빈 신학의 목적은 철인(哲人: *philosophia humana*)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philosophia Christiana*)을 제시하는 것이다.²³³⁾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시하시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을 넘어서는 그 이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물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찾기는 하지만 우리 자신의 생각으로 성경 말씀들을 어떤 사색적이고 이론적인 체계로 만들어 버리기가 일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눈과 귀를 지녀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주신다. 성령만이 성경의 진정한 해석자이시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강요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여했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원리를 해석해 볼 때 앞서 칼빈이 말했던 것을 고려해 보건대, “택함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이다.

231) Norman E. Harper, *Making Disciples, The Challenge of Christian Education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이승구 역,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교육, 서울: 정음사, 1984, p. 115.

232) 헤롤드 나이트, op. cit., p. 25.

233) Ibid.

C. 중생(거듭남)과 구원의 경험

칼빈의 신학과 교육의 중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이성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존재이다. 234) 그러나 이 형상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형되었기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에 신앙으로 자유의지를 승화시켜야 한다. 칼빈은 이러한 사상으로 특히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칼빈은 진리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교사의 인격을 강조하였다.²³⁵⁾ 그는 교사의 인격과 방법은 상호보완적이라고 하면서 좋은 방법은 교사 자신의 인격과 동시에 표출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자신이 먼저 거듭난 사람이라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교사(교육자)가 되어야 한다.

D. 관계적 지식의 소유를 위해서

기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앞에서 강조한 바 있다. 기독교교육의 내용 전반을 이루는 “神知識”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삼위일체 하나님(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역사와 생활 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다.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관련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책이나 다른 사람들

234) 고용수 외 20인, op. cit., p.122.

235) Ibid.

을 통하여 혼자서 배우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성숙한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지식이다²³⁶⁾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을 경험하는 가장 근접된 비유는 교제를 통하여 성숙되는 다른 사람에 관한 지식이다. Packer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가? ...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실하고 놀라운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목적이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²³⁷⁾ 하나님은 우리 각자와 함께 깊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원하신다. 우리가 서로를 알고 이해하는 데로 나아오는 교제를 원하신다. 결혼, 구애, 깊은 우정과 같은 것은 단지 감정만이 아니다. 다른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경험을 나누고 서로 신뢰하며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假定은 “대화 = 내용 + 관계”(Communication= Content+Relationship)의 공식에 의해서 표현된다.²³⁸⁾ 어떤 대화이든지간에 내용을 이루는 말과 그리고 사람들 상호간에 관계된 생각과 감정으로 구성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성경과 신학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하나님과 맺는 실제적인 관계 경험에 달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기초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없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은 불가능하다. 성숙된 교제는 상대방의 속 내용(content)에 관한 객관적 이해를 요구한다.²³⁹⁾

많은 사람들은 신앙적 지식이 “머리로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예를 들면 신학적 지식이나 성경암송)은 종종 신앙 생활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끼치

236) Jim Wilhoit, op. cit., p.29.

237) J.I.Packer, op. cit., p.50.

238) E.Griffin, *Getting together*,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82, p.91.

239) Jim Wilhoit, op. cit., p.30.

는 것을 볼 수 있다. 단지 이 지식이 내면화되고 마음 속으로 받아 들여졌을 때 그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마음으로 아는 지식(예를 들자면 가치관, 신념, 그리고 태도 등)은 사람의 일상생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²⁴⁰⁾ 이러한 일반적인 구분은 약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기독교적 지식에 관한 하나의 근본적인 사실을 제시해 준다. 즉 하나님에 대하여(about God)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know God) 지식은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마음으로 아는 지식은 상호 모순적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신앙적 지식에 관한 성경의 개념은 그것들을 따로 떼어놓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서 철학적인 면에서는 구별해서 설명을 해야 설명과 이해가 가능하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의미는 “세상을 섭리하시는 분에 대한 인식과 복종”을 말한다,²⁴¹⁾ 어떤 것을 안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한다는 의미 또는 그것을 행동에 옮긴다는 의미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앎’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결과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굳건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안다는 것은 관계의 결과이며 관계의 촉매제이다. 사실적 지식과 지식에 기초한 감정은 하나님에 관한 경험적 지식과 결부되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경배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²⁴²⁾ 이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성경의 중요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들도 없는 지식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만 이를 수 있는 한 결과, 즉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

240) Ibid., p. 31.

241) E. Blackman, *Knowledge*, I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edited by C. Brown,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50, p. 121.

242) Ibid., p. 36.

기독교교육은 교육자가 하나님을 깊이있게 그리고 인격적으로 앎의 중요성을 - 암시적으로 또한 명시적으로 - 가르치지 않으면 공허하며 무의미하다. 어떠한 다른 활동도 교육자가 학생(피교육자)을 하나님께 관계시키지 못하거나 그 관계의 중요성을 전달하지 못하는 교육자 자신의 무능력을 보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결 론

철학은 인간의 실존과 관계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고 동시에 해답을 추구한다. 그것은 인간의 경험의 영역이 되는 세계, 자연, 우주, 神을 소재로 하여 이것을 분석하며 탐구하는 기능을 한다. 이와같이 철학은 그 독특한 기능과 활동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다양한 사상 群의 구조를 형성하여 보편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수세기에 걸쳐 인간은 여러 가지의 답을 내리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하나님에 없는 우리의 지식과 인식의 차원은 공허할 뿐이었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과 진리는 하나님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또한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는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에 근거한 신학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일반적으로 신학과 기독교교육의 관계는 서로가 경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기독교교육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교육이며,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이 가장 최근에 발견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 이상의 것이다.

그러나 신학이 기독교교육의 중심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의 내용(즉, 가르쳐지는 내용)에서 뿐만 아니라 신학은 거의 직접적으로 기독교교육 프로그램 뒤에 놓인 전제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교육 이론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는 기독교교육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독교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기독교 교육 사역의 형태와 방향을 구체화시켜 주는 신학적 개념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하였는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神知識)”은 주로 Calvin의

『기독교강요』에서 인용하여 論하였다.

기독교교육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데 이르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후손에게까지 계속 타락된 상태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므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래 가졌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바로 그것이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구속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기독교교육도 여기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성경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창조세계에 계시된 하나님은 불충분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불신자들도 피조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 속성을 부여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충분히 계시되어 있는 성경에서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해야만 한다. 그러한 참된 지식의 소유 대상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의지도 죄를 짓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교육방법인 성령을 통해서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구속주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을 알 수 있도록 되어졌다.

위와같은 우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올바른 神知識과 연결되어 질 수 있는 것으로서 중생의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神知識)”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듭난 후에 성령

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육방법이 소개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Calvin은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을 소유하기 위한 대화는 성경과 신학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하나님과 맺는 실제적인 관계 경험에 달려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기초한 하나님과 화해된 관계없이 하나님에 관한 참된 지식의 획득은 불가능하다.

기독교교육을 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 개념들 중의 하나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논하게 되는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일차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모든 지식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기독교의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과 성숙된 교제를 나누도록 하는데 있다.

참 고 문 헌

- 강용원, 기독교교육학의 성격과 구조, 기독교교육연구시리즈(1), 부산: 고신대학교부설 기독교교육연구소, 1987.
- 고용수, “칼빈의 교육사상”, 장신논단 제5집(1989): 218-251.
- 의 20 인, 기독교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학회, 1992.
- 길현주, “교회교육의 문제와 과제”, 총신 제13호(1990), 총신대학 교지편집위원회: 71-91.
- 김이태, “칼빈신학에 있어서 경건과 학문의 상관성 연구”, 교회와 신학 제12집(1980): 30-45.
- 김학우, 창조에 나타난 인간이해, 고신대학 신학대학원 학위논문, 1982.
- 김희자,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기독교교육의 이념적 실체 연구”, 총신 제13집(1990): 54-70.
- 박윤선, 성경신학, 서울: 영음사, 1971.
- 신복윤, “칼빈신학에 있어서의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학정론 제15집(1990.7), 제16집(1990.12), 제17집(1991.7).
- , “칼빈의 성경관”, 신학정론 제19집(1992.12): 335-352.
- 오인택, “구약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특수교육”, 복된말씀 26권, 1979.
- 유정희, 성경적 인간관에 기초한 교육의 목적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0.
- 이수영, “갈렙신학의 몇가지 기본적인 관점”, 장신논단 제1집(1985): 79-104.
- 이장식, 기독교사상사(제2권),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6.
- 임창복, “히브리 및 유대교육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제5집(1989):

책 웨네마, 김성수(역), 기독교적인 교육이란 무엇인가?, 기독교교육 연구시리즈(5), 1988.

정일웅, “기독교교육의 신학적 기초”, 신학지남 제59권2집(통권232호), 1992 여름호: 149-172.

최명근, Calvin의 기독교강요에 나타난 계시관 연구, 총신대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한승홍, 기독교 교육철학 사상, 서울: 장로회신학대학 출판부, 1991.

한춘기, “교사와 기독교교육철학”, 신학지남 제59권2집(통권232호), 1992 여름호: 173-185.

헤럴드 나이트, 칼빈의 신학사상, 서울: 기독교문화협회, 1992.

후레임, 존.M., 문석호(역), 기독교적 神지식과 변증학, 서울: 은성출판사, 1989.

Bavinck, Herman, *Our Reasonable Faith a survey of christian Doctrine*, Trans. by Henry Zylstr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65.

Berkhof, Louis, *Systematic Theology*, Michigan: Grand Rapids, 1949.

Blackman, E., *Knowledge*, In A Theological word book of the Bible, edited by C. Brown,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50.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tian Religion*,

①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66.

②Edited by John T.McNeill, Translated and Index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7, 영한 기독교강요 I II III, 서울: 기독교성문출판사, 1990.

- Chamberlin, J.Gordon, *Parents and Religion - A Prepace to Christian Education*, 김관석(역), 기독교교육서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서회, 1976.
- Dowey, Edward A., *The Knowledge of God in Calvin's Theology*, New York: Columbia Univ. Press, 1952.
- Ferguson, Sinclair, 박형용(역), “개혁주의 신학과 개혁주의적 삶의 방식”, 신학정론 제16집, 1990.12: 354-389.
- Griffin, E., *Getting Together*,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82.
- Harper, Norman E., *Making Disciples*, 이승구(역), 제자훈련을 통한 현대 기독교교육,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4.
- Hoffecker, W.Andrew and Smith, Gary Scott, *Building a Christian World View*(Vol.1), 김원주(역), 기독교 세계관(제1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3.
- Holmes, Arthur F.,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역), 기독교 세계관,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85.
- , *The Idea of Christian College*, 박진경(역), 기독교 대학의 이념, 대구: 기독교대학 설립동역회 출판부, 1992.
- Jaarsma, Cornelius, *Human Development Learning and Teaching*, Grand Rapids: Wm.B.Eerdmans Pub. Co., 1961.
- , *The Educational Philosophy of Herman Bavinck*, 정정숙(역), 헤르만 바빙크의 기독교교육철학, 서울: 총산대학 출판부, 1983.
- Knight, George R., *Philosophy and Education*, 박영철 (역), 철학과 기독교교육, 대전: 침례신학대학 출판부, 1987.
- Lee, Francis Nigel, *A Christi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Philosophy*, 박일민(역), 기독교적 입장에서 본 철학사 개론,

-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 *The Origin and Destiny of Man*,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74.
- Macaulay, Susan Schaeffer, *For the Children's Sake*, 박경옥(역), 라브리의 가정교육, 라브리, 1989.
- Packer, James I., *Knowing God*, 서문강(역),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서울: 기독교문서 선교회, 1980.
- Palmer, Edwin., *The Holy Spirit*, 최낙재(역), 성령,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0.
- Palmer, Parker J., *To Know as We Are Known*, 박원호(역), 기독교교육 인식론(기독교교육의 영성), 서울: 도서출판 광나루, 1991.
- Parker, T.H., *The Doctrine of the knowledge of God: a study of John Calvin*,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 Co., 1959.
- Sherrill, Lewis Joseph, *The Gift of Power*, New York: The Macmillan Co., 1963.
- Smart, James D., *The Teaching Ministry of the Church*,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 Vieth, Paul H., *The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St. Louis: Bethany Press, 1947.
- Walsh, Brian J. and Middleton, J. Richard, *The Transforming Vision*, 김항안(역), 기독교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도서출판 글로리아, 1992.
- Warfield, B. B., *Calvin and Augustin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Co., 1956.
- Westerhoff III, John H.,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정웅섭(역), 교회의 신앙교육,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85.

통합연구, 대구: 통합연구학회, 통권13호(1991.12), 통권14호(1992.5).
성경.